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외대학보

THE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 www.hufspress.com
발행인 박철 편집인 겸 주간 장은수 편집장 김대서
인쇄인 홍윤주 신부사 02(2173-2503, 02(962-7128)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02(2173-2505)(F)
(용인)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 89

2008년 3월 19일 (수요일) 902호

서울배움터 기숙사 진단

개강 3주, 기숙사는 재정비중

신속된 서울기숙사 '글로벌비움'이 글로벌들로 가득 찬 지도 보류가 지났다. 신속 건물인 만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미처 보완하지 못한 시설 문제 등으로 행정 처리의 미흡함이 드러나고 있다.

"뜨거운 물이 가끔 안 나와요"

신속 기숙사에서는 바닥 온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온수가 끊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인력이 부족해 적절한 온도의 물을 상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학생 기숙사에 생활하고 있는 이세중(자유전공학부 08)은 "아침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 같다"며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샤워하기 힘들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여학생도 "오전 10시 이후엔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온다"고 전했다.

"세탁기가 부족해요"

현재 기숙사에 비치된 세탁기는 건조까지 가능한 트림 세탁기로 6층에 7대, 8층에 4대, 10층에 4대가 설치되었다. 360여명의 여학생이 8대, 300여명의 남학생이 7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평균적으로 여학생은 45명 당 1대를, 남학생은 42명 당 1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조까지 4시간에 달하는 세탁시간을 감안하면 세탁시간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허인성(시영·스페인어 06)양은 "기숙사 시설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나 빨래를 하러 갔다가 세탁기가 모두 사용중이어서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고 전했다며 이주영(영어·통번역 06)군 역시 "블레이트드 세탁기 대수가 적어서 불편해 한다"며 "빨래를 넣기 위해 건조대를 나눠줬는데 이 역시 사용하기엔 방이 좁다"고 덧붙였다.

자문인식 출입기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임시 설치된 출입기는 '시설 점검 중입니다'는 쪽지가 붙여진 채 작동하지 않고 있다. 주문한 기계를 생산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임시 기계를 갖다 놓았지만 프로그램 문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주문한 기계가 도착하는 오는 21일(금)까지 기숙사생은 현관 출입카드를 관제실에 보여 주고 출입을 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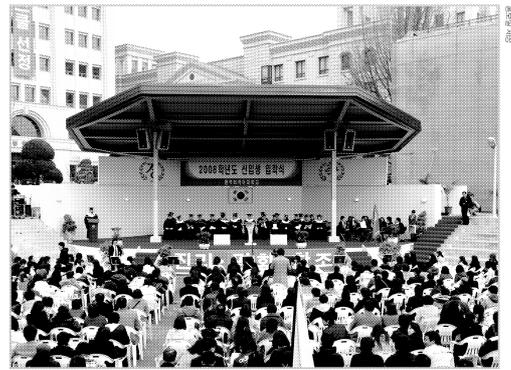
이 외에도 중국어과 07학번의 한 여학생은 "점호 시간이 오후 8시라 저녁을 먹거나 약속잡기가 애매하다"며 "한 사람이 점호를 하다 보니 8층에서 점호가 시작된 후 한 시간은 기다려야 9층에 차례가 온다"고 점호 시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제처사 행정 담당 배준형씨는 "중공 검사가 늦어져 국제처사 내 행정업무가 전체적으로 늦어졌다"며 "온돌과 온수의 경우 인력 충원중이며 이 달 안에 교육과정을 거쳐 투입할 예정이고 세탁기의 경우 빨래를 모아 하거나 건조 기능을 건조대로 대신하는 방식으로 학생들과 의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태영 국제처사장(사범대학 체육 담당 부교수)은 "점호 시 학생들의 불만 사항을 취합해 전해 듣고 있다"며 "늦어도 2주 안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말과 야간에도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이다"고 전했다.

정진진 기자 dbwlsfirst@hufs.ac.kr

외대 국제화의 시작, 영어입학식



김태영

지난 3일(월) 우리학교 양 배움터에서 는 개교 이래 최초로 영어 입학식을 시도 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입학식은 서울 배움터는 오전 10시, 용인 배움터는 오후 2시에 양배움터의 노천극장에서 새내기 와 학부모가 자리를 메운 가운데 진행됐 다. 입학식은 개식사를 시작으로 △입학 허가 △신입생 선서 △총장 축사 △총학 생회장의 환영사 △장학증서 수여 등의 순서로 이어져 교가를 부르며 마무리됐 다. 주요 연설은 영어로만 진행됐으나 행사 순서는 우리말 통역을 곁들였고 한글 판 안내책자를 나눠주는 등의 방법으로 참석자의 이해를 도왔다.

지난 달 영어대학이 학위수여식을 영 어로 진행해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 은데 이어 학교 측은 앞으로 주요 공식 행 사를 영어로 진행할 계획 중이다. 하지만 처음 시도된 만큼 영어 입학식에 대한 평 가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학생(성경·경영 08)은 "할머니, 할 아버지나 학부모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불 편하지 않았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말보다 영어가 더 이해하기 쉬

웠다는 외국인 학생들도 있었다. 이번 입 학식에서 사회를 본 허용 입학처장은 "학 부모와 학생들이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한국어도 병행했으므로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영어 입학식을 통해 학교의 특성에 맞게 영어는 물론이고 하나의 외국어를 더 공부해야 하는 분 위기에 맞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학교는 차별과 전략으로 국제화를 선택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 난해 임용된 신입교원들은 원어민의능력 이 필수 요건이었다. 또한 원어민을 하 는 내국인 교수들에게 시간당 강의를료 를 인상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원어민의 장 려하고 있다. 2009년도 신입생 모집 방법 중 영어 우수자 전형에 영어에세이를 포 함시키기도 했다.

이에 박철 총장은 입학식 자리에서 "학 교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학생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 다"며 학생들의 선전을 부탁했다.

정은실 기자 celebjies@hufs.ac.kr

개방이사 3인 3월초 선임

공석이었던 우리학교 재단 '동원육영회' 의 이사가 지난 1일(토) 선임됐다. 비공개로 열린 제 3차 이사회의에서 이사 5인(정원 6인, 장병기 이사 불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6인의 후보자 중 △안인모 (69, 전 총동문회장, 현 삼성 엔지니어링 상 입 고문) △박명석(71, 전 한국외대 영어과 교수 재직, 현 한국대학교 인문학부 명예교수) △박선영(63,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박사,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 교수)를 선임했다. (선임자, 탈락자 약력은 표 참조) 대학부

개방이사 선임자 및 탈락자 (가나다순)		
선임자	학력	경력
박명석	· 한국외대 영어과 졸업	· 전 한국외대 영어과 교수
	· 서울대 대학원 영문학 석사	· 현 단국대 인문학부 명예교수
	· 한국외대 대학원 사회언어학 박사	· 현 진석실업(주) 회장
박선영	·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	· 전 문화방송 기자
	· 이화여대 대학원 법학 석사	· 현 동국대 법과대 교수
	· 서울대 대학원 법학 박사	· 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안인모	· 한국외대 동어과 졸업	· 전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부회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수료	· 전 한국외대 총동문회 회장
		· 현 삼성엔지니어링 상임고문
탈락자		
강덕영	· 한국외대 무역학과 졸업	· 현 한국유니타스재단 대표이사
	· 한국외대 무역대학원 석사	· 현 성공관대 약학부 겸임교수
	· 경희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 현 한국외대 총동문회장
김홍기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전 삼성SDS 대표이사
	· 서강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전 동부정기기술 대표이사
		· 현 벤치마크 이스트ек 대표
조후영	· 한국외대 동어과 졸업	· 현 주지식 재산 회장
		· 현 우림건설 고문
		· 현 학교법인 수곡투데 검사

지현 안내

4 대학기회

이중전공,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해 12월, 07학번을 대상으로 이중전공 신청이 이뤄졌다. 비공개로 당시 이중전공 신청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1학년 사이에서는 이중전공 신청을 두고 일대 혼란이 야기됐다. 복잡한 이중전공, 이에 대해 분석해 본다. 이중전공, 그것이 알고 싶다.

5 국제

러시아 21세기의 '차르(Czar)'



러시아 연방 대통령들이 누리는 절대권력의 국가적 배경과 현재의 러시아가 정치를 살펴본다.

6.7 문학

Are you pregnant?



일당은 영화로 다시한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임신과 낙태. 외대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그게 만약 당신의 일이 된다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열'의 근거

▲ '서열-서성환-중경외사', 대학교 서열에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금세 알 아질 것이다. 물어보자면 서울대-연대-고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외대-시립대 라는 뜻인데, '홀리건 천국(출전)' 등의 '학교 서열 토틀 사이트(?)' 에 들어가 보면 이 순서가 무슨 수리구adro 되는 양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가끔 이 구절을 놓고 누리꾼 사이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명박이 대통령인 데 서연고는 어느 시절 얘기냐, 서고연이다', '서강대 2인자 포스 아지 유효한가? 가끔 눈에 띄는 댓글 하나. '중경외사'? 아직도 외대가 자기가 붙어있나? 건대가 요즘 얼마나 뜨는데' ▲ '홀리건' 을 아시는지? 인터넷 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모교를 치켜세우거나 타 대학을 폄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홀리건이라고 부른다. 모교에 대한 애교 심은 귀엽게 봐줄만 하지만 근거도 없이 타 학교를 비방하는 일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외대에 대해서 는 주로 학교 비하적 발언들이 많고 그 밑에 달리는 댓글도 많다. '왕년에 외대는 서울대 떨어지면 가는 학교였다' '신입생을 전기·후기로 모집할 때는

외대랑 서울대는 동급이었다 등. ▲ 학기가 시작되고 신입생과 선배가 만나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한다. 우리학교가 요즘 몇 위권이다. 우리학교가 아직은 어디보다 위에 있다 등등. 이미 들 어온 학교, 잘되기 위한 목소리보다 순위 정하기가 급하다. 게다가 학교 행사 때마다 나오는 '이번 ~를 5대 명문사학 재진입의 발판으로 삼아...' 참 부끄러운 말이다. 명문사학이면 명문사학이지 5대 명문사 학은 무엇이고 또 재진입은 무슨 말인가. 학교가 전 국 5위권 밑이라는 것을 공표하면서 누군가 작위적 으로 매진 순위에 굳이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 같아 안쓰럽기까지 하다. ▲ 학교 서열에 집착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대학교의 수준이라는 것이 몇몇 입학시험 결과와 줄세우 기 좋아하는 누리꾼들이 긁어 모은 임시 결과를 통해 규정될 수 있는 것인가. 외대가 어디보다 위라는 말, 자위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서 열 논쟁보다 교수 수를 총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학교 '서열'을 위해서는 더 득되는 일 아닌가.

편집장

8 사회

일팔씨는 여론신장의 결과?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을 맞아 한국사회 속 여성 권리의 현주소를 돌아봤다.

9 학술

영국 보수, 넌 무냐



보수를 묻는다 3회 연재기회. 그 첫 번째, 영국의 보수를 분석한다.

12인물

세계여행을 한 대학생 인터뷰

"널 수 있어" '어학연수' 갈서 치우고 세계를 품다' 의 저자 김성용씨가 외친다. 평범한 대학생 김성용씨의 조금은 특별한 경험. 그가 어학연수를 떠나기후에 배낭을 짊어지진 이유를 들어보자.

학내단신

새내기 학습포트폴리오 시행

08학년부터 학습포트폴리오(Hufsan Portfolio)를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학습포트폴리오는 기존의 신입생세미나와 달리 직업적성검사, 개별/상층 상담을 통해 진행된다. 08학번은 교양영역 중 '학습포트폴리오' 영역에서 신청하며 교양필수이수로 반드시 수강신청 해야 한다.

동유럽대, 학부모 간담회 개최

용인배움터 동유럽대학은 지난 3일(월) 후생복지관 4층 소강당에서 신입생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학과의 교수진 소개와 교과과정 및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정보와 해당 국가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이후 각 학과의 교수 및 감사진과 학부모들은 1층 교직원식당에서 다과를 나누며 향후 교육 방침과 학생 진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매일경제와 우리학교, 차이나 전략과정 수료식 열어

우리학교와 매일경제신문사(매경)가 공동 주관한 '제7기 매경-외대 차이나 CEO 글로벌 전략과정(책임교수 중국어과 강준영)'의 수료식이 지난 5일(수) 용인배움터 교수회관에서 진행됐다. 수료생들은 수료식 당일 박 철 총장을 만나 원우회(회장 이경재) 이틀로 학교발전기금 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후 우리학교와 매경은 제8기생 교육을 오는 5월에 모집을 시작하기로 했다.

용인 도서관 사물함 배정 오는 18일(화) 실시

용인배움터 도서관지위위원회(도자위)는 오는 18일(화) 5시 40분부터 중앙도서관 사물함을 배정한다. 중앙도서관에는 현재 410여개의 사물함이 비치되어있으며 매학기 새롭게 사물함을 배정해왔다. 배정은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보관료로 3천원을 지급해야 한다. 도자위는 중앙도서관에 관련된 복지나 사무업무를 보조하며 지난 학기부터 학내자치기구로 인증 받았다.

교수님과 함께 아침식사를!

우리학교 사범대학은 3일(월) 서울배움터 교수회관 2층 카페테리아에서 입학 행사로 '스승과 함께하는 대학의 첫 아침'을 진행했다. '첫 아침'은 외국인 교수를 포함하여 사범대 교수 20명 전원이 참여해 손수 입학생들의 아침식사를 준비해 새내기를 환영하는 행사다. 사범대 교수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주먹밥을 만들어 준비된 과일, 음료 등으로 입학생 130여명과 함께 아침식사를 했다.

서울, 구학관 화재 소동

화재에 대한 주의 각별히 필요해



▲ 학생회관 2층 화재현장, 학생들의 안전의식 부재가 화를 불렀다.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앞에 소방차와 응급차가 출동하는 광경이 벌어졌다. 지난 12일(월) 저녁 9시경 구 학생회관 건물 2층 미식축구부에 불이 나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학내 구성원들에게 전열기구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건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저녁 8시 30분 경 미식축구부장 박 모군이 마지막으로 동아리방을 떠났고 9시쯤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나왔다. 마침 맞은편 서우회 회원이 박 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박 군은 학교로 돌아와 소화기를 들고 자체진화에 나섰다. 119에 사건이 접수되고 동대문구 소방서에서 출동했으나 정확한 발화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박 군이 몰답배(김고) 날렵하게 생긴 금속관에 들어 담긴 향아리를 연결시켜 담배 연기가 불속을 통과하게끔 고안된 기구를 피우기 위해 불을 붙이다 내려놓고 간 석탄이 원

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학생복지처는 경위서를 바탕으로 박 군의 징계를 검토중이다.

이로써 그동안 안일했던 안전의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무심코 켜져있는 전열기구나 불이 남아 있는 담배꽂초 등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내 소방시설 점검과 철저한 방재대책 마련의 계기도 되고 있다. 우리학교는 추마다 법적 기준에 따라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소화전을 설치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화재 현장을 둘러본 한 소방대원은 소화전의 호스가 15미터라 짧은 길이 때문에 진화에 사용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학생회관에 퍼져나가고 있을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가까운 동아리 방에 있던 학생들은 박 군의 신속한 조치로 대피했으나 1층에 있던 학생들은 화재소식을 알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오성진 시설관리팀장은 "화재경보기는 제대로 작동하는 때 보다 잘못 작동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정은길 기자 celebjes@hufs.ac.kr

시청각교육원 중간 표시판 필요해

서울배움터 시청각교육원 중간표시판이 사물함에 가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서울배움터에서 중간표시판이 없거나 보이지 않는 계단은 잔디동산 쪽에 위치한 시청각 교육원 계단 하나 뿐이다. 중간표시판이 없을 경우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중간 구분이 어려워진다.

이에 대해 한수빈(사양·노어 08)양은 "내가 올라가고 있는 계단이 몇 층인지 헷갈려서 불편하다"며 "올라가다 말고 복도로 들어가 층계를 확인하는 경우도 많고 가끔 한 층 더 올라가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남학생 역시 "3층과 4층 사이에서 헷갈린다"며 "충충 불편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정지원처 권오주 과장은 "빠른 시일 내에 확인 하겠다"며 "시정 가능하다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dbwlsfirst@hufs.ac.kr

단백질 연구센터, 우리 품으로

우리학교에 바이오산업용 단백질연구센터(단백질센터)가 설치됐다.

단백질센터는 고부가가치의 고기능성 단백질 개발과 산업화를 목표로 지난 6일(목) 용인배움터 국제지역대학원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단백질센터에서는 하현준 센터장(생명화학과)과 자연과학대학의 3개 학과 8명의 교수가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 이들이 연구하는 주제는 산업용 단백질 효소와 바이러스감염을 제어하는 단백질 개발이다. 연구는 산학협력 형태로 이뤄지며 현재 경기도 지역 14개 바이오산업체가 연구에 참여 중이다. 이들 업체는 단백질 센터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참여한다.

단백질 센터가 우리학교에 설치된 것은 우리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yunggi-do Regional Research Center, GRRC) 사업에 지원해 선정됐기 때문이다. 지역협력연구센터(RRC)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의 대학과 산업체를 연계해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달성한다는 산학협력 사업이다. 우리학교는 경기도의 주력사업인 바이오산업에 대한 연구실적과 설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 센터장은 "바이오산업 연구에서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훌륭한 연구기관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 기자 jae@hufs.ac.kr

"꿈을 가져라!"

용인배움터 참여학생회는 여성의 날 기념행사로 12일(수) 컴퓨터로 낸시 령을 초청해 그녀의 삶과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낸시 령의 강연 주제는 "꿈을 가져라!"였다.

서지영 기자 unlandjy@hufs.ac.kr

Johann Wolfgang von Goethe

FAUST

Eine Tragödie

파우스트, 파우스트적인것 - 오늘날의 테마

- 강연자 : Jochen Golz(요한 골츠) 박사(국제 괴테학회회장)
 - *통역 및 우리말 자료 있음
- 일시 : 2008년 3월 21일 (금) 16:00
- 장소 : 신보관 109호

2008/2009 터키정부초청장학생 선발안내 (영어, 불어, 터키어)

2008/2009 터키정부초청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다음 -

1. 선발과정 및 인원 : 석사 또는 박사과정, 총 2명
2. 장학기간 : 학위기간(2008. 10월부터)
3. 장학내역 : 수업료 면제, 의료혜택, 월 생활비 약 15만원 등 (항공료는 본인 부담)
4. 지원 자격 : 터키어, 영어 또는 불어가 능통한 자, 졸업예정자부터 지원 가능
5. 지원마감일 및 지원방법 : 2008. 4. 11(금) 오후 5시(까지) 국제교류팀(본관 225호)으로 지원

등록금 연속보도

작년 등록금 318만원 중 12만원은 적립금

본예산 바운는 적립금

우리학교의 2007년 적립금이 예산보다 약 7.5배 이상 적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2007년 본예산안은 약 6억 4천만 원을 적립하도록 짜여 있었다. 그러나 결산자료에 따르면 총 48억여 원에 이르는 금액을 적립해 예산보다 무려 42억 가량 더 많은 금액을 축적했다.

이 같은 초과적립은 작년엔더 일이 아니다. 2006년에는 예산안을 통해 7억여 원을 적립하기로 했던 학교는 결산 결과 무려 140억여 원을 적립해 당초 예산보다 20여 배가 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었다. 또한 2005년에도 9억 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제로는 5배 이상에 달하는 48억 원을 적립했다.

이렇게 적립금이 예산에 비해 늘어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다. 첫번째는 수입이 늘어났을 경우로 두번째는 다른 내역에서 집행되지 않는 미지급액이 적립되는 경우다. 우리학교는 후자의 경우다.

용인배출터 동아리연합회는 대자보를 통해 제출 내역 중 연구학생비 32억 6천만 원, 고층자산매입지출 48억 8천만 원 등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배출터 사범대 학생회에서는 지난 등록금 조정위원회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행동을 벌였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등재된 우리학교 자금계산서에 따르면 2004년 17억 8천, 2005년 29억 9천, 2006년 48억 9천만 원씩 미사용돼 이월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립금에 등록금 인상의 요인

적립금을 조성하는 데는 학생의 등록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학교경비의 약 80%가 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2007년의 경우 총 등록금 수입 중 적립금 지출 비율은 3.9%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318만 3천 원 중 약 12만 원을 적립금으로 낸 셈이다. 2006년에는 등록금 수입 중 12.8%가 적립금으로 쌓였다. 291만 1천 원 중 약 37만 원에 달하는 수치다. 그 2005년과 2004년에도 4.6%를 유지하고 있었다.

학생이 내는 등록금은 법적으로 수업료 이외의 방식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현 고층배출터 총학생회장 박민석(서양·불어 02)군은 "학교는 적립금을 투자를 위한 중

거이다.

적립금의 목적은 자본금?

이러한 적립금은 장학기금, 건축기금 등의 명목으로 적립돼 건물을 짓거나 장학금을 운용할 때 사용된다. 예산안에서 '투자'와 '기타자산지출'이라는 항목이 적립금에 해당한다. 이 투자와 기타자산지출은 구체적으로 스유가증권 매입 등에 이용되는 투자 자산 지출 스유권나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특정기금 적립 △보조금 등에 사용되는 기타자산 지출이 있다. 우리학교의 올해 적립금 사용계획은 건축비 잔여금 70억 원이다. 그 외에도 서울배출터 시청각교육원 리모델링에도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사실 적립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도리어 적립금 지출을 꺼리고 있다. 학교가 적립금을 단순한 기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학교는 등록금 협상 과정에서 학교재정이 열악해 적립금이 필요한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왔다. 그러나 2007년 2월을 기준으로 우리학교가 적립하고 있는 액수는 230억 원이다. 서울배출터 총학생회장 박민석(서양·불어 02)군은 "학교는 적립금을 투자를 위한 중

거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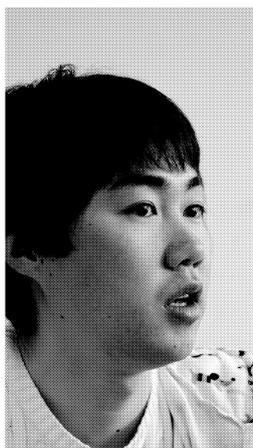
올해 '본예산' 적립금은 일단 5억원

이렇듯 적립금이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학교는 올해도 적립금을 예산에 포함시켰다. 5억 원으로 편성된 이번 적립금은 작년 예산안에 비해 1억 4천만 원이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작년 적립금만 48억 원에 달하므로 인하된 수치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올해 역시 결산 시 적립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유광희 예산조정팀장은 "보통 예산안대로 회기가 집행되지 않는다"며 "지출이나 수입이 변동이 생겨 추가경정예산을 다시 편성한다"고 밝혔다. 5억 원이상으로 적립될 수 있는 질문은 "적립금의 경우 수입이 변하면 금액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등록금 조정과정에서는 예산안을 두고 학생회와 협의를 하게 되고 또 그를 가지고 등록금 및 현재 예산을 확정한다. 따라서 예산보다 5배 이상 늘어나는 적립금 결산에 대해서 학교당국의 책임이 요구된다.

이재 기자 jael@hufs.ac.kr



동아리연합회장 인터뷰

등록금 인상 납득 못해, 학교는 19일 공청회에서 답하라

우리학교 용인배출터 동아리연합회(동연)에서는 개강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등록금에 대한 목소리가 예년에 비해 작은 가운데 꾸준히 등록금 반대를 외치고 있는 동연회장 조승행(이과·이법 이과)을 만나봤다.

동연이 등록금에 대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우리학교 학우 모두가 동아리 회원이 될 수 있다. 동연은 단순히 동아리 회원만이 아니라 우리학교 전체 학우와 함께하는 것이다. 동연장이라면 당연히 동아리 회원뿐만 아니라 학우 전체를 생각해야한다.

이번 등록금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등록금이 높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또한 책정 과정도 부당하다. 등록금 조정위원회 과정에서 지재은 전 부총장이 마치 선심 쓰듯 "등록금을 내려라, 올려라" 할 발언에도 알 수 있듯이 학교당국이 학생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통번역대가 신설돼 새내기 입학금 포함 530만원의 등록금을 냈는데 교과과정의 거의 변화가 없었다. 게다가 학생자치회비는 도리어 축소됐다. 근거 없는 차등인상도 문제다.

등록금 운동의 목표가 무엇인가?

먼저 불가인상률인 2.5% 이상의 인상을 올 전면부정하고 환불을 요구한다. 고작 몇 만원 돌려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몇 만원이 절실한 학생도 많다. 또한 학생자치회비를 확보하고 학생들을 위한 비용도 확실히 마련해야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는 플람이나 대자보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고 강의실을 방문해 등록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알리고 있다. 앞으로 이력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3월 19일(수)에 등록금에 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미 공문도 보내놓은 상태다. 학교는 등록금 인상 근거를 학생들에게 해명하고 대자보를 통해

제기한 질문들에 대답해야 한다. 등록금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등록금에 대해서는 우리학교 학우 모두 참여해야 한다. 학우들이 공감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행동은 의미가 없다. 단위장 개인의 독단으로 할 수 없는 문제다. 학우들이 공청회 같은 자리에 참석해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고 등록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한다.

이재 기자 jael@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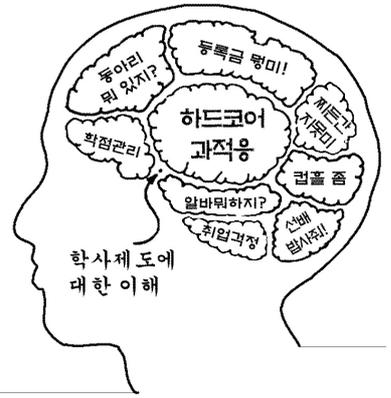
Advertisement for STX recruitment. It features the slogan '우리는 세계로 갑니다 STX로 갑니다' (We go to the world with STX). The ad lists 2008 recruitment positions for STX, including roles like '해양엔지니어링', '항공엔지니어링', '조선공학', etc.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recruitment and a list of STX subsidiaries.

이중전공 연재수서

- ① 이중전공, 그것이 알고 싶다 (902호)
- ② 이중전공, 필수가 아닌 '선택' (903호)

이중전공 기획 연재 ①

이중전공, 그것이 알고 싶다



이중전공이 배정되고 새 학기가 시작된 현재, 이중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학생들은 자신의 졸업학점은 얼마인지, 이수 학점은 몇 점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복잡한 이중전공,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해 본다. **백만재**

이중전공이란?

이중전공제도는 소속 학과 이외에 다른 전공을 선택해 두 개의 전공을 이수하는 학사제도다. 이중전공 제도는 기존의 부전공, 제2전공제도와는 달리 전공 학점(54학점)과 동등한 학점을 이수해 졸업할 때 두 개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07학년부터는 반드시 이중전공을 이수해야 하며(법과대 학생 제외) 이중전공을 원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편입생의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이중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나 재학연한(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소속된 배움터에 있는 학과만 이중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한번 선택한 이중전공은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중전공과 전공심화과정은 1학년 2학기 말 학교홈페이지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다. 한

편 사범대 전공은 사범대학 학생만 이중전공할 수 있다.

이중전공 배정비율은 각 학과 입학정원의 1.5배수다(사범대학의 경우 1배수). 또한 배정기준은 ①본인의 희망 ②1학년 성적(학년 평점) ③학과장 의견 순으로 배정된다.

이중전공 이수 방법

이중전공자와 전공심화자는 이수학점이 각각 다르며 이중전공자 일지라도 단과대학 별로 졸업배정학점이 다르다. (>표 참조) 그리고 수강신청 시 전공자와 동일과목이 있을 경우 이중전공 선택자를 위해 개설된 과목만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제1전공과 마찬가지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졸업시험 역시 동등하게 치러야 한다.

이중전공 선택 시 실용외국어는 1학년 과정(4학점)만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FLEX성적 (듣기·읽기) 701점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실용외국어 선택의 경우 제1전공과는 달라야 하지만 이중전공과는 동일해도 상관없다. 이중전공을 이수할 경우 한 장의 졸업장에 두 개의 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기재된다.

한편 이중전공 선택 시 연계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

다. 연계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학부·전공)가 연계하여 전공을 개설한 것이다. 현재 △동북아연계전공(중국어과, 일본어과) △문화콘텐츠학연계전공(어문계열, 인문학부) △BRICs 연계전공(BRICs 해당 국가 언어학과, 상경(경상) 및 IT관련학과) △EUN계전공(인문사회계열)이 운영되고 있다.

연계전공도 1학년 2학기 말에 신청하며 이중 BRICs 연계전공은 예외적으로 2학년 1학기에 신청을 받는다. 연계전공 이수학점은 54학점으로 이중전공과 동일하며 졸업시 연계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를 수여받는다.

전공심화란?

07학번 학생부터 이중전공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이수해야하는 제도로 자신의 전공을 심화 학습할 수 있다. 전공심화를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전공을 선택해야 하며 자유선택과목(사범대의 경우 교직과목)을 이수해야만 한다. 또한 타 배움터에서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학생 또한 반드시 전공심화과정을 선택하고, 부전공을 이수해야 한다.(>표 참조)

신종현 기자 manuel@hufs.ac.kr

학과별 졸업학점 배분표

■ 이중전공, 전공심화 선택 시(사범대학, 통번역대학, 법과대학 제외)

영역	이중전공	전공심화
교양(실용외국어)	26(4)	26(4)
전공	54	75
이중전공	54	-
부전공	-	21
자유선택	-	12
계	134	134

■ 사범대학 이중전공, 전공심화 선택 시

영역	이중전공	전공심화(701점)	전공심화(801점)
교양(실용외국어)	18(4)	18(4)	20(4)
전공	51	75	62
이중전공	51	-	-
부전공	-	21	38
교직	20	20	20
계	134	134	140

■ 통번역대학 이중전공, 전공심화 선택 시(08학번)

영역	이중전공	전공심화
교양(실용외국어)	26(4)	26(4)
전공	70	83
이중전공	54	-
부전공	-	21
교직	-	20
계	150	150

■ 법과대학

영역	학점
교양(실용외국어)	26(4)
전공(필수)	61
전공(선택)	26
부전공 / 자유선택	21
계	134

제대로 된 학사제도 설명회가 필요한 시점

"이중전공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졸업학점 등은 구체적으로는 모른다"

올해 입학한 08학번 새내기들이 이중전공에 대해 하는 말이다. 이중전공 제도가 실시된 지 한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아는 학생은 없는 상태다. 이는 이중전공이 필수로 채택된 07학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학생의 간부로 활동하는 어수진(인문·사학 07)은 "후배들에게 이중전공에 대해 알려주기에는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단위나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중전공에 대한 설명회는 2006년 용인배움터에서 한 번 개최됐다. 용인배움터 교무처는 작년 12월 7일(목) 이중전공 및 연계전공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중전공 제도가 필수 과정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마땅한 홍보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올해는 용인배움터에 통번역대학이 신설되는 등 08학번을 대상으로 하는 학사제도가 변경돼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학교당국은 홈페이지 및 학사종합지원센터 게시판을 통해 학사안내를 하고 있다. 또한 이메일로도 부분적으로 이중전공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으나 실제 활용은 미비한 형편이다. 용인배움터 학사종합지원센터 손천수 팀장은 "강의시간과 책자나 외대 일람 등에 기재돼 있다"며 "학생도 스스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와 같이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

는 학사제도에 대한 설명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차유재(서유림·독어 01)은 "재학생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이중전공 및 학사제도에 대한 안내책자 등을 구체화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수진양 또한 "공지나 안내문을 봐도 어려워 학교당국에 제차 문의해야 한다"며 "학사제도에 대해 알리는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탐정은 "설명회를 개최하고 싶어도 학생들이 잘 참여하지 않는다"며 "학생회 단위에서 자리를 같이 만들면 설명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재 기자 jael@hufs.ac.kr

예비군 전입 신청 안내

1. 신청 대상 : 입학(일반, 편입, 재입학), 복학, 복수전공, 분교 학부에서 대학원 입학한 자
2. 신청 기간 : 2008. 2. 11(월) ~ 3. 28(금)까지
3. 신청 방법 : 학교홈페이지 → 대학생할 안내 → 병무 → 직장예비군 → 예비군 대원 신청바로그기
4. 유의사항
가. 전입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접속이 안되는 학생은예비군연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나. 2008년도 전역자는 2009년도 1학기 등록기간에

예비군 전입 신청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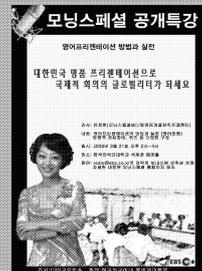
다. 학교예비군 연대에 전입전 지역 중대에서 보충 교육 훈련을 무단 불참한 학생 예비군은 전입 후에도 방침보류 훈련 8시간과 별도로 무단 불참훈련을 받습니다.

라. 방침보류 8시간 교육훈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예비군 연대 전입 후 전출 기간이 6개월 경과하여야 합니다.

마. 3월 28일(금)까지 전입 신청하여 예비군 교육훈련을 부당하게 더 많이 이수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 서울캠퍼스 예비군연대 2173-2513~4 (학생회관 1층)

서울 직장예비군연대



EBS FM 모닝스페셜 공개특강

영어 프리젠테이션 특강

- 강 사 : 안정현(모닝스페셜MC/평창동계올림픽프리젠테이션)
- 내 용 : 영어프리젠테이션의 방법과 실전 (영어진행) 방청객 자유참여, 퀴즈 등 다양한 구성
- 일 시 : 2008년 3월 21일 오후 2시~4시
-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 2층 애경홀(정원 230명)
- 참여방법 : radio@ebs.co.kr로 연락처를 보내신분을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개별통지 및모닝스페셜 홈페이지에 공고
- 주 최 : EBS 교육방송
- 후 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러시아
 • 위치: 동부 유럽 • 수도: 모스크바 (Moskva) • 언어: 러시아어
 • 종교: 러시아정교 • 정치: 공화제

21세기의 '짜리(zar)' 들

러시아 연방의 절대 권력, 그 역사와 오늘



메드베데프 약력

1965. 9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생
 1982-90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법학대학원 박사
 1989 스웨덴이나 빅토리아대학 교수(1년)
 1990-99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법률자문위원(1년) 및 인턴
 1999. 12 크렘린 행정실 부실장
 2000. 3 푸틴 대통령실장
 2000. 7 조국부 장관(1년)
 2003. 10 크렘린 대통령실장
 행정실장(2002년 11월)
 2005. 11 제1부총리(1년)
 2007. 12 푸틴 대통령실 부장
 차관 블라디미르 푸틴 부

주지하다시피 지난 3월 2일 있었던 러시아 대선(大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의 절대적 후원을 등에 업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러시아 연방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득표율 70%라는 압승이었다. 이는 푸틴이 2004년 그의 두 번째 대선에서의 득표율 71% 획득 및 최근 임기 말 그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여전히 70%를 훌쩍 넘어져서 있는 것과 그 궤(軌)를 같이 한다.

이는 러시아인들이 1991년 말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시작된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과도기적 혼란을 단숨에 극복하고 재임 8년 동안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러시아를 다시 '강대국'으로 부활시킨 푸틴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그의 절대적 후원과 지지를 받고 있는 메드베데프에게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짜리'의 유래
 지금도 세상에서는 과거 소련 시절의 최고 권력자인 소련공산당 서기장이나 오늘날 러시아 연방 대통령을 곧잘 '짜리'라고 부

른다. 특히 푸틴에 대해서는 서방 언론들이 '21세기의 새로운 짜리'라고까지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어로 '짜리'(Царь, Czar)라는 말은 원래 로마의 절대권력자인 시저(Caesar)를 제정 러시아 시대 이전부터 러시아어로 표기하면서 유래한다.

그렇다면 중앙집권적 통치권을 확실하게 장악하여 그 자신의 꿈이자 러시아인들의 꿈인 '강한 러시아'를 재건하여 대내외적으로 이를 심분 과시한 푸틴 대통령의 절대권력은 어디로부터 유래하는 것일까? 나아가 러시아 역사를 통해 때로는 전제권력이나 전제주의적 권력으로의 변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내외적 국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해낸 러시아 역대 통치자들의 중앙집권적 절대권력의 연원(淵源)은 무엇인가?

러시아인의 집단적식과 그 배경
 우리는 러시아의 광대무변한 대자연은 잠시만이라도 접해보면 이 나라에선 '무엇인

가 먼저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체득하게 된다. 또한 이처럼 광막하고 때로는 가혹하며 외경(畏敬)스러운 자연환경 속에서는 '인간이 자연환경에 도전하기보다 이에 순응하면서 동시에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사실 러시아인들은 이러한 자연환경과 이에 따른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외침(外侵)이라는 가혹한 역사적 수난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처음부터 외부세력을 경계하고 적대시하는 공동운명체적 집단을 이루어 살아 왔다. 물론 어느 민족이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집단을 이루어 살기 시작했겠지만, 러시아인들의 집단적식은 그들만의 특징적 자연환경과 민족적 수난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보다 더 강력하고 유별난 것이었다.

이처럼 유별난 공동운명체적 집단생활 속에서는 절대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가장장적 권위주의(중앙집권주의)에 의해서만이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러시아인들은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들 러시아민족은 처음부터 만장일치제를 통한 가장장적 중앙집권주의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

이는 서구의 다수결제와는 달리 러시아인들이 만장일치제를 바탕으로 일상불란하게 행해지는 중앙집권적 통치권력에 의해서만이 자신들의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현대 러시아의 '봉건민주주의'
 러시아인들의 이러한 의식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러시아 정치문화의 전통적 핵심 요소가 구체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행 러시아 연방 헌법에 명시되고 있는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이라 할 수 있다. 헌

법 제84.109.111.117조는 대통령의 국회(하원) 해산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93조는 대통령이 결코 탄핵받게 될 수 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

작금에 이러한 성격의 통치권을 움켜쥐게 메드베데프가 서방 자유주의적 성향이 짙은 인물이라고는 하나 푸틴의 수렴청정(垂簾聽政)을 받아들일지는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다만 푸틴의 민주주의를 '봉건민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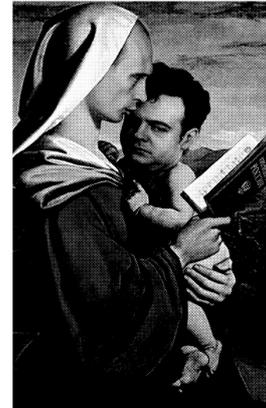
의' 또는 '주권민주주의'라고 지칭하는 정치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러시아의 통치권은 결코 태생적으로 분점이 허용되지 않는 중앙집권적 절대권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연수 | 노여과 교수

▶ '포스트 푸틴'이라 불리는 메드베데프가 당선되어 푸틴의 정책을 그대로 물려 받은 것을 보여주는 마트로시카(인인 푸틴)



▼ 푸틴 대통령과 후계자 메드베데프를 모자관계로 풍자한 그림



2008-1 폐강과목 공고 안내

2008학년도 제1학기 서울캠퍼스 폐강교과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니, 해당 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은 2008년 3월 21일(금)까지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폐강교과목 현황

순번	개설학과	이수영역	학년	학수번호	교과목명	강의시간	비고
1	통번역학	전공	4	A01430102	비즈니스프레젠테이션	화56	
2	영어학과	이중(부)	3	A01109309	고급영어회화(1)	목12	
3	영어학과	이중(부)	3	A01221109	시사영어강독(2)	목12	
4	영문학과	이중(부)	3	A01538105	영국문학개관	화12	
5	이탈리아어과	전공	3	A06301201	고급이탈리아어회화(1)	수34금7	
6	교양과정위원회	실외(필)	1	U71251101	실용인도어	월56목4	
7	교양과정위원회	인문예	1	U76253101	희랍어의세계	월56	
8	교양과정위원회	특교	1	U76136101	우르두어와파키스탄문화	금78	

이상 총 8강좌

2008. 3. 13
서울 캠퍼스 교무처

신입생세미나 관련 Holland적성검사 실시 안내

신입생세미나 과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Holland 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2008학번 신입생은 필수사항이므로 기간 내에 빠짐없이 적성검사를 필히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 2008학번 신입생 전체
- 기간 : 2008. 3. 17(월) ~ 2008. 3. 31(월)
- 방법 : 학교 홈페이지 접속
(종합정보시스템 → Login → 상담정보 → 적성검사(Holland))
- 기타 :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심리검사와는 별개임.

2008. 3. 14
교 무 처

나한테 안 닥치면 무대책도 OK?



“나 임신했어”
“나 임신했어”

위 모델과 본 기사의 기획방향은 무관함을 밝힙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뱃속에 아기가 있다면? 혹은 당신 여자 친구의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면?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있을 법한 일'을 '있을 법하게' 생각한 대학생이다. 통계상으로도 대학생의 임신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지시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적으로 누구보다 자유를 누리고 있는 당신이라면, '있을 법한 일'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외대학부 문화부는 외대생들이 임신을 자신의 일로써 고민해 보길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다.

문답자

35% 이미 경험했다.

41% 보통 안하고 한다.

생 438,062 : 342,433 명

최근 보건 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 중 34.7%가 이미 성경험이 있으며, 1학년생의 경우에도 15%에 달했으며 남학생 (48.4%)이 여학생 (21.7%)보다 배가량 많다고 조사되었다. 그에 비해 성관계시 보통 피임을 안 한다는 응답자는 40.9%에 달해 임신에 무감각하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해 438,062명이 출생하고 342,433명이 태어난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보다 남성의 필요나 요구에 의한 성관계를 맺고, 여성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혹은 하고 싶지 않을 때 '안된다'고 정확히 자신의 의사를 밝히기 어려워한다. 남성의 요구를 거부했을 때 관계가 끊길 것을 두려워한 여성들이 제대로 피임을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금기와 일탈 사이에서 방황하는 성(性)

우리 사회는 현재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극이 공존한다. 하나의 극은 가정, 학교를 중심으로 한 금기적 성문화이다. 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성장하는 것을 당연시해서, 성적 무지 상태를 순수한 것이라 여기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성적 호기심이 강한 시기인 반면에, 사회는 '미' 성년의 틀에 끼워 무성적 존재

로 보호, 통제한다. 다른 극은 인터넷이나 지하매체를 통한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인식시키고 있다. 전자 청소년들에게 성적호기심으로 유도시키면 후자가 왜곡된 성문화를 가르치게 되는 식이다. 이렇게 배운 청소년들은 대학생이 된다. 그리고 그 대학생이 된 아이들은 가정을 떠나 타지의 대학을 다니며 기숙사, 자취 등의 엄청난 자율권이 주어지게 된다. 그렇게 시작 된 대학생활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성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기이다. 고3에서 대학입학까지 짧은 기간 동안, 정신적 혼란감은 물론, 원치 않은 임신, 낙태 등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성관계에 대한 생각, 남·여가 달라

한국 성문화 연구소의 성행태 조사에 따르면 혼전 성관계를 갖는 이유에 대해 남학생들은 '중동' 때문이라는 응답이 약 3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사랑하기 때문-21%) 반면, 여학생들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4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상대방이 원해서-30%) 이 결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성행동에 있어 성적 주체가 되지 못함을 보인다. 또 혼전 성관계에 대해 '결혼 시 상대방의 순결사실에 대해서는 무시하겠다'고 반응하면서도 '여성의 순결은 남성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대해 이중적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또 많은 여학생들은 성관계를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자연스런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성관계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피임에 실패하기 쉽고, 피임에 부정적이게 된다고 한다.

임신은 남의 일?

가치관과 현실 사이에서 묻다

그렇다면 실제 학생들의 인식도 통계와 같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학생들이 과연 임신을 자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하기로 했다.

첫번째 질문은 '자신의 평소 자

관에 입각하여 본인이 임신하거나 여자친구가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였고 두번째 질문은 '지금 당장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태이거나 그런 여자친구가 눈앞에서 '임신했다'고 말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절수술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낳아도 키울 능력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다음으로 많았던 응답은 '상대방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었는데, 대부분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서라기보다 자신이 이 선택을 한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눈곱을 끈 것은 인터넷부터 각각의 집단이다. 남학생들은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수가 열명 중 네 명은 되었지만, 여학생들은 열 명중 한명도 채 안되었다는 사실이다. 과거처럼 임신으로 인해 결혼, 가정에 얽매어 가기 보다는 자신을 위해 차라리 병정한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두 번째 질문,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태'라는 상황에 학생들은 아끼워는 달리 난감해 하는 태도를 보이며서 답하기 매우 어려워했다. 이 질문으로 어떤 여학생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남학생들은 진땀을 흘렸다. 한 학생은 '이 순간에는 어떤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 가치관도 도움이 안되는 것 같다'며 '막상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 바로 몇 분 전 내가 했던 말인데도 망설여진다.'고 했다.

당신의 일 일 수 있디나까요!

우리는 언제나 멀리 떨어져서 임신이나, 낙태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우리 대학생들이 진정 지켜봐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이성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이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며, 한다고 해도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혹은 본인의 일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 해도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임신이 누구에게 생길 수 있는 일이고, '내 일'로서 한번쯤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지영 기자 unlandj@hufs.ac.kr

여자들은 왜 이렇게 피곤하게 돌아다닐까?

♣ 배고프다, 밥먹으러 가자~
♀ 우 앞 새로 생긴 베이커리 가볼래? 커피 비몽만 내면 빵은 무료래.
♣ 빵이 무슨 밥이 되냐? 그건 나중에 먹고 밥부터 먹으러 가자. (아우 배고파 죽겠는데 빵이 뭐야)
♀ 언 땀날 밥집이나. 오늘은 밥 대신 빵먹자.
♣ 빵이 어떻게 밥이 되니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야지.
♀ 어휴~ 못 살아. 그럼 밥 먹으러 가. (하루종일 빵먹을 수도 있는 거지, 꼭 밥 먹으러 가제더라)

식당에서

♀ 든든히 먹어~~ 소꿉하러 가면 많이 힘들거야
♣ (소꿉!!!!) 꼭 오늘 가야해? (아~

또 한참을 빙빙 돌텐데...)
♀ 내가 저번에 간다고 했잖아~
♣ 응응... 오늘은 맘에 드는 옷 보면 바로 사자. 저번에도 여기 저기 가고, 갔던데 또 가더니 결국 처음

간데서 샀잖아. ^^ (여자들은 왜 그렇게 피곤하게 돌아다닐까? 그냥 맘에 들면 사는거지.)
♀ 어떻게 그래. 옷은 꼭꼭히 봐야 하는거야. 우리집이 갑부도 아닌데 가격이란 실용성도 잘 따져 봐야하구. (웃 사는데 쉬운 줄 아

니?)
♣ 그래 알겠어. 대신 빨리 고르거나 ~ 그런데 너 어제 전화할 때 왜 그렇게 딱딱하게 굳거야?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할 말 있지?

♀ 어? 아니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 또 꼬집어 내는거야~)
♣ 편데~ 말해봐~ (이거 뭐가 있는 데...)
♀ 아무것도 아는데... 별거 아니구, 저번 주말에 네 친구들 만났을 때 나 좀 심했어.

♣ 애들 만났을 때? 너 재밌게 놀았잖아?
♀ 재밌진 뭐가 재밌어? 나 완전 뽕뽕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넌 어쩔... 니 친구들 사이에 나 데려다 놓고 그렇게 신경 안 할 수가 있니? 난 안중에도 없었던 거 알아? (완전 모르는 눈치네)
♣ 그... 그랬어? 미안해~ 난 너가 워낙 사교성이 좋으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는 줄 알았지~ (정말 재밌어 보였는데...)
♀ 넌 술 마실 때랑 게임할 때는 정말 무심해지는 것 같더라.
♣ 내가 그랬어? 미안해~ 다음엔 널 더 챙길게. 화 풀어. 응?

시례 제공 김혜진(서유림·통번과 06) 제구성 정유진 기자 dbwls1st@hufspress.com

문화면에서 저를 구합니다!

문화면에서는 'PC방에서 온 남자 카페에서 온 여자'를 제곱해 줄 사람을 구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학보기자에게 일상에서 느끼는 서로의 차이점을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영화관련권 2매를 드립니다.

연락처 :
(서울) (02)2173-2504
016-748-7530
(충남) (031)330-4112
010-5806-2920

발칙한 여운이 남는 책 &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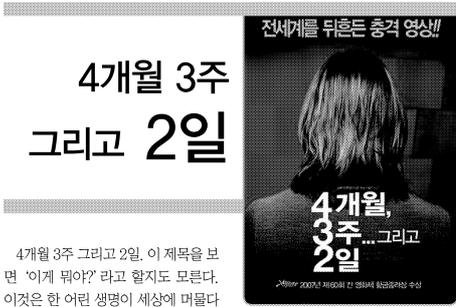
주노 JUNO

하드코어 락과 슬래셔 영화를 즐기는 소녀 주노. 하루는 '경험'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남자친구와 일을 치른다. 그러나 어, 임신은 계획에 없었는데?!

뱃속의 아기도 심장이 뛰고 손톱이 있다는 말에 마음을 비둘 수 없을 지 모르겠고 한 그녀는 신문광고에서 아기를 입양해 줄 부모를 찾는다. 자신이 그리 완벽한 상의 부모를 찾은 주노는 출산 전 열 달 동안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생활한다. 늘 그랬듯 학교를 다니고 패스트푸드를 즐겨먹는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주노는 심대의 임신이나 낙태에 대해 진지하지만 심각하지 않게 고민해 볼 기회를 던져준다. 또한 사랑이든 아이든 무엇이든 남녀 간 일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책임지거나 혹은 꺼안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간의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것이 무척 힘들다는 것 또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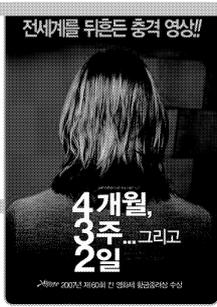
자, 옆에 있는 사람과 주노의 이야기를 보며 함께 대화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는지?



4개월 3주 그리고 2일

4개월 3주 그리고 2일, 이 제목을 보면 '이게 뭐야?'라고 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한 어린 생명이 세상에 머물다 간 기간이다.

1987년, 차우세스크 독재정권 아래 루마니아는 낙태를 금지했다. 그런 중 여대생 가비타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그녀의 룸메이트인 오틸리아는 그런 그녀를 돕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낙태를 위해 시내의 허름한 호텔을 찾은 그들은 수술을 해주기로 한 사람과 접선하지만 가비타가 임신기간을 2개월로 속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격노하는 시술사가 폭력적인 남성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가비타와 오틸리아는



그 앞에서 한없이 약해질 뿐이다. 겨우 수술이 끝나고 오틸리아는 죽은 아기를 수건에 싸서 버린다.

영화는 내내 가혹한 긴장이 넘치고 그 안에서 불안이 휩싸인 인물들이 허둥댄다. 지나칠 정도로 리얼하게 그 시대와 낙태를 연결한 이 영화는 당시에 그 낙태에 대한 생각들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생존에 대한 문제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작은 천사들의 119

'작은 천사들의 119'가 번역서이기 는 하나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 사회적 격리를 받아야 했던 동서양의 미혼모 들이 갖는 공통점을 살감게 다루고 있다.

한편, 이 책에서 소개되는 '버려지는 아기 프로젝트'도 흥미롭게 볼만하다. 이 프로젝트는 익명으로 신생아들을 데려다 볼 수 있는 베이비 클라페(Baby Klappen)를 곳곳에 설치해 죽거나 버려지는 아이들을 살리려는 운동을 뜻하는데, 이 운동이 살려내는 천사들의 이야기는 당신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영역서 발매 안 된 절절한 소녀 마리아가 결혼에 느끼는 부담감,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일터하게 될 것이라 말



네티비티 스토리

했을 때 느끼는 당혹감 등을 그려낸다. 또한 아무리 성령으로라도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요셉의 난감함도 나타난다. 당시 유대민족의 풍습대로라면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마리아는 돌을 맞아야 했겠지만, 요셉이 그녀와 결혼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을 극복한다. 그리고 그들은 해룻왕의 폭정을 피해 요셉의 고향으로 여정에 오른다.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신혼부부 같은 느낌의 돌을 보며 베들레헴 이야기나 혼전임신에 대해서나 색다른 느낌을 받을지도.



작은 천사들의 119

엄마가 되기에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한 소녀, 임신 사실이 밝혀지면 집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는 여성, 성폭행을 통해 임신을 했기에 차라리 아기가 사산되거나 낙태되기를 바라는 여성.

이 책은 저자 모이지하가 이런 미혼모들과 그들의 천사들(아기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한 이야기를 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미혼모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 공감해 본 적 있는가?

야단夜短 _ 밤에 떠오른 짧은 생각

때로는 그냥, 감성에 내맡기기

골목 모퉁이 그 자리에는 그의 카페가 있다. 여자는 번심한 애인에게 들려줄 열쇠를 맡기기 위해 그곳을 찾는다. 카페에는 이미 여러 사연을 지닌 열쇠들이 유리창아래에 한 가득이다. 그녀는 매일 밤 카페에서 자신처럼 아무도 찾지 않는 블루베리 파이를 먹는다. 그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점점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어느 날 그녀는 훌쩍 뉴욕을 떠나버린다. 마이 블루베리 나이트.

중경성립, 화양연화 등의 영화로 유명한 왕가위 감독의 새로운 영화다. 이 영화는 캐스팅, 미국에서의 첫 장편이라는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어쩌사인지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노라 존스의 풍부한 음성이나 주드 로의 달콤한 미소에 취하기보다는 왕가위 감독 특유의 감성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모두 올라가고 사람들이 몰릴 듯 극장을 빠져나가는 중에 또 계속 그 '감성'에 대한 생각을 그칠 수 없었다.

우리는 흔히 자신들을 감성적이거나 이성적인 두 부류로 나눈다. 감성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영화를 보고 그것에 동화되거나 혹은 동화되고 싶을 것이다. 영화 속 주인공들의 사랑을 보며 부러워하고, 절절한 이별을 보며 눈물을 글썽거릴지도 모른다. 또한 등장인물들의 우울과 고통을 보며 자신의 경우에 빗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왕가위 감독의 영화들처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감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다. 이제 는 연인이 아닌 이에게 전하는 물건, 여러 사연들이 깃든 열쇠들, 늘 남겨지는 블루베리 파이, 홀로 훌쩍 떠나는 여행, 이 요소들은 사랑을 동경하는 하이라인 로맨스나 등장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감성' 쪽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뻔한 사랑 얘기가 인생 얘기가 늘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거기다 지나치게 감상적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천편일률적이고 자아도취적인 그 인연은 우리의, 혹은 누군가의 죽었던 시절의 난관이 들어 있다. 혹자는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이 가장 이상적인 상이라고도 하지만 이 시절엔 뜨거운 가슴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낯선 도시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여러 사정을 접한다. 그 이야기들은 염서로 그녀를 기다리는 그에게 보내진다. 그 여행이 그녀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음은 당연한 얘기다. 다시 돌아온 그녀는 그와 달콤한 사랑을 시작하려 한다.

'여기로 돌아오는데 1년 가까이 걸렸다. 길을 건너는 건 그 어려울 게 없었다. 건너편에서 누가 기다려 주느냐에 달렸을 뿐.'

이런 그녀의 독백은 감성에 자신을 한 번 빗겨보고 싶게 만 들지 않는가?

정난을 문화부 차장

그돈에 가고 싶다 _ 내 지갑 수만엔

연극 머쉬멜로우

당신도 머쉬멜로우의 사랑이고 있죠?!

관객이 배우가 되고, 도둑이 주인이 되는 기성천의환! 단, 남는 것은 웃음 뿐!

난술 기자

• 그 돈 : 13,500원

한 젊은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할 위기에 놓인다. 싸움이 일어난 그 날 밤, 집에 도둑이 들고 이 때 만취해 들어온 남편은 도둑과 실랑이를 벌이다 그에 동화된다. 남편은 도둑에게 아내와의 문제를 털어놓고... 도둑은 부부의 갈등을 해결해주고 그 집을 떠난다.

유진 기자

문화연계에서

그 돈에 함께 갈 독자를 모집합니다!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짝꿍한 관심만 알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5458-4749

일상 크로키

여행, 네티즌 소식, 책, 영화, 학내공연, 맛집 정보, 학교에 대한 불만 등등 자질한 문화적 소식을 기사 개성대로 모아 실는 코너이다.

신조어

폴리머서 poli+(pro)fessor : 정치에 참여하는 교수님들
 폴리타이너 poli+(enter)tainer : 정치 참여 연예인들... 예를 들어 유인촌
 폴리널리스트 poli+(jour)nalist : 중립 안녕 ~ 정치 안녕! 언론인들
 폴리크라트 poli+(bureat)crat : 요선 공무원들도 정치를 한다.

우리학교 학생증 좀 짱인듯?

신문증, 체크카드, 교통카드, 전자화폐, 공인인증서 기능까지...!
 잃어버리면 대략 낭패^^; 재발급 수수료가 1만원이었다. 학생증 재발급은 우리은행에서.

종로일대

이 지역은 어딜 내려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라는걸... 상경 1년 만에 알았다. 상경동에서 인사동으로, 시청앞 광장으로, 덕수궁 돌담길에서 정동길로...

지영이수첩

진짜가죽인형은 감동... 2007-09-14, 2007-09-15, 2007-09-16, 2007-09-17, 2007-09-18, 2007-09-19, 2007-09-20, 2007-09-21, 2007-09-22, 2007-09-23, 2007-09-24, 2007-09-25, 2007-09-26, 2007-09-27, 2007-09-28, 2007-09-29, 2007-09-30, 2007-10-01, 2007-10-02, 2007-10-03, 2007-10-04, 2007-10-05, 2007-10-06, 2007-10-07, 2007-10-08, 2007-10-09, 2007-10-10, 2007-10-11, 2007-10-12, 2007-10-13, 2007-10-14, 2007-10-15, 2007-10-16, 2007-10-17, 2007-10-18, 2007-10-19, 2007-10-20, 2007-10-21, 2007-10-22, 2007-10-23, 2007-10-24, 2007-10-25, 2007-10-26, 2007-10-27, 2007-10-28, 2007-10-29, 2007-10-30, 2007-10-31, 2007-11-01, 2007-11-02, 2007-11-03, 2007-11-04, 2007-11-05, 2007-11-06, 2007-11-07, 2007-11-08, 2007-11-09, 2007-11-10, 2007-11-11, 2007-11-12, 2007-11-13, 2007-11-14, 2007-11-15, 2007-11-16, 2007-11-17, 2007-11-18, 2007-11-19, 2007-11-20, 2007-11-21, 2007-11-22, 2007-11-23, 2007-11-24, 2007-11-25, 2007-11-26, 2007-11-27, 2007-11-28, 2007-11-29, 2007-11-30, 2007-12-01, 2007-12-02, 2007-12-03, 2007-12-04, 2007-12-05, 2007-12-06, 2007-12-07, 2007-12-08, 2007-12-09, 2007-12-10, 2007-12-11, 2007-12-12, 2007-12-13, 2007-12-14, 2007-12-15, 2007-12-16, 2007-12-17, 2007-12-18, 2007-12-19, 2007-12-20, 2007-12-21, 2007-12-22, 2007-12-23, 2007-12-24, 2007-12-25, 2007-12-26, 2007-12-27, 2007-12-28, 2007-12-29, 2007-12-30, 2007-12-31, 2008-01-01, 2008-01-02, 2008-01-03, 2008-01-04, 2008-01-05, 2008-01-06, 2008-01-07, 2008-01-08, 2008-01-09, 2008-01-10, 2008-01-11, 2008-01-12, 2008-01-13, 2008-01-14, 2008-01-15, 2008-01-16, 2008-01-17, 2008-01-18, 2008-01-19, 2008-01-20, 2008-01-21, 2008-01-22, 2008-01-23, 2008-01-24, 2008-01-25, 2008-01-26, 2008-01-27, 2008-01-28, 2008-01-29, 2008-01-30, 2008-01-31, 2008-02-01, 2008-02-02, 2008-02-03, 2008-02-04, 2008-02-05, 2008-02-06, 2008-02-07, 2008-02-08, 2008-02-09, 2008-02-10, 2008-02-11, 2008-02-12, 2008-02-13, 2008-02-14, 2008-02-15, 2008-02-16, 2008-02-17, 2008-02-18, 2008-02-19, 2008-02-20, 2008-02-21, 2008-02-22, 2008-02-23, 2008-02-24, 2008-02-25, 2008-02-26, 2008-02-27, 2008-02-28, 2008-02-29, 2008-03-01, 2008-03-02, 2008-03-03, 2008-03-04, 2008-03-05, 2008-03-06, 2008-03-07, 2008-03-08, 2008-03-09, 2008-03-10, 2008-03-11, 2008-03-12, 2008-03-13, 2008-03-14, 2008-03-15, 2008-03-16, 2008-03-17, 2008-03-18, 2008-03-19, 2008-03-20, 2008-03-21, 2008-03-22, 2008-03-23, 2008-03-24, 2008-03-25, 2008-03-26, 2008-03-27, 2008-03-28, 2008-03-29, 2008-03-30, 2008-03-31, 2008-04-01, 2008-04-02, 2008-04-03, 2008-04-04, 2008-04-05, 2008-04-06, 2008-04-07, 2008-04-08, 2008-04-09, 2008-04-10, 2008-04-11, 2008-04-12, 2008-04-13, 2008-04-14, 2008-04-15, 2008-04-16, 2008-04-17, 2008-04-18, 2008-04-19, 2008-04-20, 2008-04-21, 2008-04-22, 2008-04-23, 2008-04-24, 2008-04-25, 2008-04-26, 2008-04-27, 2008-04-28, 2008-04-29, 2008-04-30, 2008-05-01, 2008-05-02, 2008-05-03, 2008-05-04, 2008-05-05, 2008-05-06, 2008-05-07, 2008-05-08, 2008-05-09, 2008-05-10, 2008-05-11, 2008-05-12, 2008-05-13, 2008-05-14, 2008-05-15, 2008-05-16, 2008-05-17, 2008-05-18, 2008-05-19, 2008-05-20, 2008-05-21, 2008-05-22, 2008-05-23, 2008-05-24, 2008-05-25, 2008-05-26, 2008-05-27, 2008-05-28, 2008-05-29, 2008-05-30, 2008-05-31, 2008-06-01, 2008-06-02, 2008-06-03, 2008-06-04, 2008-06-05, 2008-06-06, 2008-06-07, 2008-06-08, 2008-06-09, 2008-06-10, 2008-06-11, 2008-06-12, 2008-06-13, 2008-06-14, 2008-06-15, 2008-06-16, 2008-06-17, 2008-06-18, 2008-06-19, 2008-06-20, 2008-06-21, 2008-06-22, 2008-06-23, 2008-06-24, 2008-06-25, 2008-06-26, 2008-06-27, 2008-06-28, 2008-06-29, 2008-06-30, 2008-07-01, 2008-07-02, 2008-07-03, 2008-07-04, 2008-07-05, 2008-07-06, 2008-07-07, 2008-07-08, 2008-07-09, 2008-07-10, 2008-07-11, 2008-07-12, 2008-07-13, 2008-07-14, 2008-07-15, 2008-07-16, 2008-07-17, 2008-07-18, 2008-07-19, 2008-07-20, 2008-07-21, 2008-07-22, 2008-07-23, 2008-07-24, 2008-07-25, 2008-07-26, 2008-07-27, 2008-07-28, 2008-07-29, 2008-07-30, 2008-07-31, 2008-08-01, 2008-08-02, 2008-08-03, 2008-08-04, 2008-08-05, 2008-08-06, 2008-08-07, 2008-08-08, 2008-08-09, 2008-08-10, 2008-08-11, 2008-08-12, 2008-08-13, 2008-08-14, 2008-08-15, 2008-08-16, 2008-08-17, 2008-08-18, 2008-08-19, 2008-08-20, 2008-08-21, 2008-08-22, 2008-08-23, 2008-08-24, 2008-08-25, 2008-08-26, 2008-08-27, 2008-08-28, 2008-08-29, 2008-08-30, 2008-08-31, 2008-09-01, 2008-09-02, 2008-09-03, 2008-09-04, 2008-09-05, 2008-09-06, 2008-09-07, 2008-09-08, 2008-09-09, 2008-09-10, 2008-09-11, 2008-09-12, 2008-09-13, 2008-09-14, 2008-09-15, 2008-09-16, 2008-09-17, 2008-09-18, 2008-09-19, 2008-09-20, 2008-09-21, 2008-09-22, 2008-09-23, 2008-09-24, 2008-09-25, 2008-09-26, 2008-09-27, 2008-09-28, 2008-09-29, 2008-09-30, 2008-10-01, 2008-10-02, 2008-10-03, 2008-10-04, 2008-10-05, 2008-10-06, 2008-10-07, 2008-10-08, 2008-10-09, 2008-10-10, 2008-10-11, 2008-10-12, 2008-10-13, 2008-10-14, 2008-10-15, 2008-10-16, 2008-10-17, 2008-10-18, 2008-10-19, 2008-10-20, 2008-10-21, 2008-10-22, 2008-10-23, 2008-10-24, 2008-10-25, 2008-10-26, 2008-10-27, 2008-10-28, 2008-10-29, 2008-10-30, 2008-10-31, 2008-11-01, 2008-11-02, 2008-11-03, 2008-11-04, 2008-11-05, 2008-11-06, 2008-11-07, 2008-11-08, 2008-11-09, 2008-11-10, 2008-11-11, 2008-11-12, 2008-11-13, 2008-11-14, 2008-11-15, 2008-11-16, 2008-11-17, 2008-11-18, 2008-11-19, 2008-11-20, 2008-11-21, 2008-11-22, 2008-11-23, 2008-11-24, 2008-11-25, 2008-11-26, 2008-11-27, 2008-11-28, 2008-11-29, 2008-11-30, 2008-12-01, 2008-12-02, 2008-12-03, 2008-12-04, 2008-12-05, 2008-12-06, 2008-12-07, 2008-12-08, 2008-12-09, 2008-12-10, 2008-12-11, 2008-12-12, 2008-12-13, 2008-12-14, 2008-12-15, 2008-12-16, 2008-12-17, 2008-12-18, 2008-12-19, 2008-12-20, 2008-12-21, 2008-12-22, 2008-12-23, 2008-12-24, 2008-12-25, 2008-12-26, 2008-12-27, 2008-12-28, 2008-12-29, 2008-12-30, 2008-12-31, 2009-01-01, 2009-01-02, 2009-01-03, 2009-01-04, 2009-01-05, 2009-01-06, 2009-01-07, 2009-01-08, 2009-01-09, 2009-01-10, 2009-01-11, 2009-01-12, 2009-01-13, 2009-01-14, 2009-01-15, 2009-01-16, 2009-01-17, 2009-01-18, 2009-01-19, 2009-01-20, 2009-01-21, 2009-01-22, 2009-01-23, 2009-01-24, 2009-01-25, 2009-01-26, 2009-01-27, 2009-01-28, 2009-01-29, 2009-01-30, 2009-01-31, 2009-02-01, 2009-02-02, 2009-02-03, 2009-02-04, 2009-02-05, 2009-02-06, 2009-02-07, 2009-02-08, 2009-02-09, 2009-02-10, 2009-02-11, 2009-02-12, 2009-02-13, 2009-02-14, 2009-02-15, 2009-02-16, 2009-02-17, 2009-02-18, 2009-02-19, 2009-02-20, 2009-02-21, 2009-02-22, 2009-02-23, 2009-02-24, 2009-02-25, 2009-02-26, 2009-02-27, 2009-02-28, 2009-02-29, 2009-03-01, 2009-03-02, 2009-03-03, 2009-03-04, 2009-03-05, 2009-03-06, 2009-03-07, 2009-03-08, 2009-03-09, 2009-03-10, 2009-03-11, 2009-03-12, 2009-03-13, 2009-03-14, 2009-03-15, 2009-03-16, 2009-03-17, 2009-03-18, 2009-03-19, 2009-03-20, 2009-03-21, 2009-03-22, 2009-03-23, 2009-03-24, 2009-03-25, 2009-03-26, 2009-03-27, 2009-03-28, 2009-03-29, 2009-03-30, 2009-03-31, 2009-04-01, 2009-04-02, 2009-04-03, 2009-04-04, 2009-04-05, 2009-04-06, 2009-04-07, 2009-04-08, 2009-04-09, 2009-04-10, 2009-04-11, 2009-04-12, 2009-04-13, 2009-04-14, 2009-04-15, 2009-04-16, 2009-04-17, 2009-04-18, 2009-04-19, 2009-04-20, 2009-04-21, 2009-04-22, 2009-04-23, 2009-04-24, 2009-04-25, 2009-04-26, 2009-04-27, 2009-04-28, 2009-04-29, 2009-04-30, 2009-05-01, 2009-05-02, 2009-05-03, 2009-05-04, 2009-05-05, 2009-05-06, 2009-05-07, 2009-05-08, 2009-05-09, 2009-05-10, 2009-05-11, 2009-05-12, 2009-05-13, 2009-05-14, 2009-05-15, 2009-05-16, 2009-05-17, 2009-05-18, 2009-05-19, 2009-05-20, 2009-05-21, 2009-05-22, 2009-05-23, 2009-05-24, 2009-05-25, 2009-05-26, 2009-05-27, 2009-05-28, 2009-05-29, 2009-05-30, 2009-05-31, 2009-06-01, 2009-06-02, 2009-06-03, 2009-06-04, 2009-06-05, 2009-06-06, 2009-06-07, 2009-06-08, 2009-06-09, 2009-06-10, 2009-06-11, 2009-06-12, 2009-06-13, 2009-06-14, 2009-06-15, 2009-06-16, 2009-06-17, 2009-06-18, 2009-06-19, 2009-06-20, 2009-06-21, 2009-06-22, 2009-06-23, 2009-06-24, 2009-06-25, 2009-06-26, 2009-06-27, 2009-06-28, 2009-06-29, 2009-06-30, 2009-07-01, 2009-07-02, 2009-07-03, 2009-07-04, 2009-07-05, 2009-07-06, 2009-07-07, 2009-07-08, 2009-07-09, 2009-07-10, 2009-07-11, 2009-07-12, 2009-07-13, 2009-07-14, 2009-07-15, 2009-07-16, 2009-07-17, 2009-07-18, 2009-07-19, 2009-07-20, 2009-07-21, 2009-07-22, 2009-07-23, 2009-07-24, 2009-07-25, 2009-07-26, 2009-07-27, 2009-07-28, 2009-07-29, 2009-07-30, 2009-07-31, 2009-08-01, 2009-08-02, 2009-08-03, 2009-08-04, 2009-08-05, 2009-08-06, 2009-08-07, 2009-08-08, 2009-08-09, 2009-08-10, 2009-08-11, 2009-08-12, 2009-08-13, 2009-08-14, 2009-08-15, 2009-08-16, 2009-08-17, 2009-08-18, 2009-08-19, 2009-08-20, 2009-08-21, 2009-08-22, 2009-08-23, 2009-08-24, 2009-08-25, 2009-08-26, 2009-08-27, 2009-08-28, 2009-08-29, 2009-08-30, 2009-08-31, 2009-09-01, 2009-09-02, 2009-09-03, 2009-09-04, 2009-09-05, 2009-09-06, 2009-09-07, 2009-09-08, 2009-09-09, 2009-09-10, 2009-09-11, 2009-09-12, 2009-09-13, 2009-09-14, 2009-09-15, 2009-09-16, 2009-09-17, 2009-09-18, 2009-09-19, 2009-09-20, 2009-09-21, 2009-09-22, 2009-09-23, 2009-0

알파걸이 여성 권리 신장의 결과물이라고?

알파걸이 보내는 편지



안녕? 내 이름은 알파걸이고 미국에서 아동심리학을 연구하는 킨 킨존 박사야. 붙여준 이름이야. 알파 '알'은 '첫째'라는 뜻이래. 난 남자와 비교했을 때 성적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운동도 제법 잘하지. 말로만 듣던 '엄마 친구 딸'이 아니냐고? 글썄, 요즘 나 같은 여자들은 주변에 흔할 텐데. 각종 고사에서 여성 합격자가 남성 합격자보다 많아졌고 미국에서는 여성 대통령 후보까지 등장했을 정도니까.

참, 지난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이 되는 해라 다들 '여성의 권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사람들은 내 등장이 마치 우월해진 여성의 권리를 보여준다고 생각했나봐.

세계 여성의 날은 1857년 뉴욕의 의류 산업 여공들이 근무조건과 낮은 임금을 개선해달라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됐어. 시위는 경찰에 의해 진압됐지만 2년 뒤 같은 날 처음으로 여성노조를 만드는 데 성공해. 1908년 뉴욕에서 여성들이 노동환경과 참정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다시 거리로 나왔고, 여기서 비롯된 세계 여성의 날은 매년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성과를 축하하는 날이야.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청과 유관순 기념관에 모여 한국 사회 속 여성 권리의 현주소를 돌아봤지.

그런데 동시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 우리 사회에 아직도 신장될 여권이 남아있고, 재작년에는 첫 여성총리로 등장했고, 호주에도 페지벤데타가 나 같은 알파걸들도 한 둘이 아닌대 말이야. 남은 건 성별에 관계없이 개개인의 노력여하에 달린 일이 아니냐는 거였어. 하지만 세계노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

정규직 노동자의 64.4%가 여성이고, 임금격차는 36%에 달한다. 전 세계 평균 임금 격차가 15.6%인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야.

한편에서는 OECD가 조사한 성·제도·개발지수인 GID지수에서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했다며 양성평등 수준이 높아졌다는 주장도 있어. GID지수는 흔히 여성의 피임, 이혼, 외출의 자유, 상속 평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양성평등 지표로 쓰이기도 해. 그러나 동시에 성차지수(gender gap)은 92위에 머무르고 있어. 이에 대해 우리학교에서 '여성과 사회' 수업의 박혜숙 교수는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나 법적 조치 등이 잘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셨어. 물론 GID 지수만으로 우리가 성평등이 실현된 사회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는 말까지 덧붙이셨지.

한국 사회 속 양성평등과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논하려면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학교를 볼까? 학생식당에는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20분 가운데 18분이 여성분이야. 우리 어머니 나이 또래까지지. 이분들은 시급 4200원에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1시간의 중노동을 하고 계산단타라. 정규직으로 채용된 분들은 퇴직금과 4대 보험처리라도 되지만, 인력이 필요할 때 불규칙적으로 일해주시는 3~6분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개념으로 분류되고 있지.

우리가 등교하기 전에 학교를 청소해주는 분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동원안전시스템에서 미화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여성 46명, 남성 20명이라. 매일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받는 급여는 여성은 73만원 남성은 80만원이란다.

여학생이 많기로 유명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상황을 볼까? 경력개발센터의 백경희씨 말로는 여학생 취업률이 남학생들보다 많이 낮대.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만나보면 남학생들이 회사에서 더 오래 버티다며 같은 점수라면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을 더 선호한다더라. 그래서 '여학생 커리어개발'과 같은 교양과목이 2006년부터 생기고도 했고, 여학생 리더십 캠프도 준비돼있지.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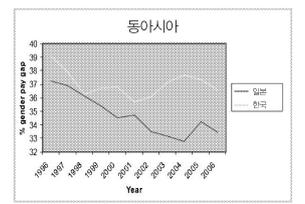
학생 커리어개발 수업을 담당하는 신상훈 교수는 "요즘에는 법조계를 비롯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남성 위주의 직업군에 여학생들이 취업하기는 아직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하셨나니까.

여러몇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늘어놓았네. 그런데 혹시 여성운동이 결코 여성이 우월하거나 여성만을 위한 사회를 만들자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건 아니냐? 굳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이 맥을 나란히 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 남성과 여성 모두가 같이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것, 그뿐이라는 거야, 알파?

정은실 기자 celebjes@hufs.ac.kr



▲ 세계 노동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성별 임금격차



▲ 일본과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 추이 (출처: 세계노동)

시대상상(相想) _ 목걸이의 마틸드가 2100 한국에 태어난다면?

마틸드의 대한민국 서민으로 살기

사급셋방에서 하루하루 고단히 살아갔던 한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흔히 노기다라 불리는 토목 사업을, 아내는 대기업을 이끌며 단 대형 마트에서 그 이름의 떡을 보지 못하는 판매업을 생업으로 하였다. 삼십하고 바코드를 찍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딸이 생겼으니 그 이름 마틸드라.

그녀는 어릴 때부터 영특할 뿐만 아니라 생김새도 좋았으니 부부의 자랑이라 할 만 하였다. 곤궁한 가정 속에서 자라며 마틸드는 아무리 어려워도 꼭 성공하여 부모의 전철을 밟지 않겠노라 결심했다. 자신을 질자타마 하던 그녀는 성장하여 어느덧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다. 그러나 대학은 그저 영민하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집안 일 등에 치여 영어에만 몰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겨우 들어간 대학은 그녀에게 등록금이

라는 결정적 일격을 가했다. 대학을 졸업한 마틸드에겐 취업은 고사하고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만 남았다. 그런 그녀, 백조로 방황하던 대학 시절부터 교제하던 애인과 혼인했다. 그는 청년실업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취업해 남들의 부러움을 샀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였다.

마틸드는 생활고에 찌들어 살며 자신이 부모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중 하루는 회사에서 부부동반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남편이 전하였다. 남편 그림자 없는 옷과 장신구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으나 남편이 묘안을 내었다.

친분이 있었던 포레스타에 부인에게 빌려 보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Y지 방 출신에 K대학을 나와 아메리카에서 학위까지 받은 엘리트에 지금은 어느 교회의 장로라 하였다. 부인이 알아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기념으로 남편에게 받은 오피스텔에서 마틸드는 빌릴 옷과 장신

구를 골랐다. 모인에서 돌아오는 전차안에서 그녀는 빌린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 다시 돌아가 봤지만 목걸이는 행적을 감춘 뒤였다. 대출과 사채로 목걸이를 샀을 마틸드 부부는 빚을 갚아 나가다 파산 신고를 하고,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해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누구들과는 달리 그들은 두세산골에 묻혀 밤을 일구기로 하였다.

어느 날 마틸드는 생필품을 사기 위해 읍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땅을 보러온 포레스타에 부인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때 목걸이를 판 돈을 주시 투자로 불러 자금을 마련했다고 하였다. 너도 땅을 사랑하느냐는 마틸드의 질문에 그녀는 운하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라 답했다 한다.

정난술 기자

주워먹는 시사

리히텐슈타인 [명사] 1. 국가 지명 2. 미국 팝아트의 예술가 Lichtenstein

유럽의 한 소국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위치한 이 국가는 오랫동안 유럽을 비롯해 미국, 남미 등 세계 부호들의 탈세의 온상지로 알려져 왔다. 바로 리히텐슈타인이다.

리히텐슈타인은 금융구조가 복잡해 자산보유자 파악이 어려운 곳이며 이 나라의 은행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기로 유명하다. 이같은 환경을 이용해 세계 각국의 부호들은 비밀계좌를 만들어 탈세와 돈세탁을 하였다. 유럽은 물론 미국, 호주 등의 국가들은 이와 관계된 자국민들을 소환하고 있으며 다른 조세회피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연치 않게 우리나라에서도 리히텐슈타인과 관련한 큰 논란이 있었다. 미국 팝아트의 거장 토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행복한 눈물〉이 그것이다. 삼성이 비자금으로 이 작품을 구입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특검의 수사로 삼성계 핵심인사들이 줄

줄이 소환되고 차명·심계좌가 추가 발견되는 등 삼성의 영향력만큼이나 특검의 사회적 파장이 컸다. 그러나 삼성에 대한 모든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 그렇기엔 삼성의 영향력은 사회적으로도,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삼성이 망하면 한국도 기운다.'라는 의식, 이제 공식화돼 버린 듯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벌어진 사회 문제지만 너무 다르게 해결돼 가고 있는 유럽과 한국의 리히텐슈타인 논란. 그들은 자국민이라도 가진 자들의 범법행위에 엄격히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내 최대 기업의 부도덕성에 너무 관용적이지 않은가.

삼성이 세계 최대기업이라 자부한다면 '비자금, 백감'과 같은 꼬리표는 이제 스스로 떼어내야 할 때도 됐다. 최소한 대한민국에 단 한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존재한다면 말이다.

정희주 | 사회·정치외교 07

보수를 묻는다 - 기획 연재 ①

영국 보수주의의 역사성과 행보

지금까지 진보당론에 비해 보수당론은 관심에서 비껴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보세력은 위기에 빠지고 보수세력이 힘을 얻고 있다. 진보에 대한 오색만큼이나 보수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 역시 중요한 시기다. 외대학보에서는 과연 보수세력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3회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주**

연재소개

- ① 영국을 통해 바라보는 보수주의의 형성과 가치체계
- ② 우리나라 보수주의의 역사성과 현재
- ③ 보수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고민

영국은 18세기에 세계 최초로 산업화를 달성했으며, 계급갈등을 비롯한 산업화의 부작용 역시 가장 먼저 경험한 나라였다. 1789년 프랑스혁명의 여파는 이러한 부작용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성격의 것이었다. 프랑스혁명 직후 영국의 몇몇 지식인들은 그러한 폭력적이고 아반적인 사태가 영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영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치를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와는 반대로, 영국인들도 프랑스인들처럼 왕과 귀족의 폭정에 대한 항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지식인들도 있었다. 전자를 대표하는 인물로서는 영국 보수주의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를, 후자의 경우엔 급진주의(radicalism)의 선구자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을 들 수 있다.

버크는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질서'를 중시했다. 그는 국가를 가정에 비교하면서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가정의 평화를 담당하며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각자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할 때 가족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듯이, 국가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군주와 귀족계급이 통치를 책임지고, 일반 국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각자 열심히 일할 때 그 국가의 안녕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귀족계급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동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정치는 이들처럼 생계를 위한 활동 이외의 다른 활동에 종사할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종의 봉사행위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곧 보수주의의 핵심인 온정주의(paternalism)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는 '자연권(natural rights)'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하여 평등한 정치참여를 강조한 영국의 급진주의와는 상반되는 개념이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영국의 보수주의는

보수당, 그리고 급진주의는 자유당의 이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실제 정치에 본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영국의 정치사상들은 이론가들에 의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기 보다는 기본적인 틀만 갖추어지고 나면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수주의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비록 기본 정신을 정립한 것은 버크이지만 이후에 밀, 디즈레일리, 그리고 대처와 같은 보수당 정치인들이 이를 실제 정치 무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보수당은 원래 지주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출발했으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주로 유산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성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유산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출발

하지만 보수당이 변화에 항상 적대적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1880년대 이후부터 1914년 사이의 기간은 '개혁의 시대'라고도 불릴 만큼 여러 분야에 걸친 개혁이 단행된 시기였는데, 비록 상당 부분은 급진주의자들의 노력의 결과였지만, 보수당 정치인들 역시 때로는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때로는 다른 사회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혁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온정주의는 지배계급의 권위를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들을 보살피듯이 피지배계급을 돌보아야 한다는 사상이었다. 보수당과 보수주의의 목표 역시 모든 것을 무조건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위협에 처하면 언제든지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 영국 보수당이 자유당과도 대조적으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도 정권 창출이 가능한 정당으로 살아남았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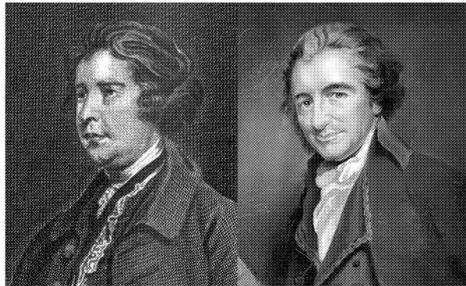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노동당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처럼 유연한 태도 덕분이었다. 보수당이 생존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그들의 정책에 동조하는 중간계급 및 노동계급이 많았다는 점에 있다. 보수당은 지주계급의 이해관계를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정당이 결코 아니었다. 사회 질서의 유지는 지주계급은 물론 사회전체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그들의 신조였으며, 상당수의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이 이러한 주장을 수긍하여 보수당을 지지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현재 10년 넘게 집권하고 있는 노동당이 1997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더 이상 노동계급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는 이른바 '제3의 길' 수사는 유권자들을 매혹시켰으며, 대처 수상의 독단적이고 편협한 정치행태와 뒤를 이은 메이저 내각의 무능하고 부패한 모습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보수주의의 목표는 사회질서 유지

이제 영국의 정당들은 특정 계급의 지지에만 의존하는 정책으로서는 정권을 창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중앙정치 무대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까지 중앙정치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환경, 의료, 문화와 같은 '변두리 분야'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다.

이제 독재의 그늘은 물론 이른바 '3김 시대'의 그늘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난 우리나라의 정치상황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되리라 조심스레 전망해 본다.

김상수 | 통번역대학 영어학부 교수



▲ 에드먼드 버크(좌)와 토머스 페인(우)

문학으로 세상보기

임화와 김수영 혁명을 위하여



cheon seon | 한국어교육과

"자고 새면 / 이별을 꿈꾸면서 / 나는 어느 날이나 / 무사하기를 바랐다."(『자고 새면』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사회주의의 물결이 물러나고, 한 때 사회주의자였던 많은 지식인들이 전향을 하였을 무렵, 임화는 이시를 발표했다.

임화가 말하는 '이별'이란 곧 혁명이었을 것이다. 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던 사회주의의 물결이 물러나고, 한 때 사회주의자였던 많은 지식인들이 전향을 하였을 무렵, 임화는 이시를 발표했다.

마르크스를 살짝 뒤늦게 알게된 임화, "하나의 유행이 지금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경계'라는 유행이" 먹고사는 일 이외엔 다른 중요한 일이지만, 요즘 말하는 '경계'는 먹고사는 일을 넘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괴물이고, 모든 답물들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이며, 또한 언제 우리를 습격할지 모르는 유행과 같은 존재이다. 문화는 삶에서 분리되어 '문화산업'이 되고, 사랑도 혁명도 팔려나간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은 절대 권능의 존재, 신물신(神物)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경계'한다. 어느 틈엔가 세계화는 이런 물신의 다른 현상 형태로 되고 말았다(본래 그런 것인 지도 모르지만). 세계화나 경쟁력이라는 말로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인간 그 자체에 자행되는 약육강식의 폭력성은 감추어지고, 그 감추어짐조차 인지되지 않을 때, 그래서 '자명한 것'이 되어버릴 때, 세계는 유행이 현실이 되는 공포의 공간이 된다.

'혁명'이란 더 이상 사회주의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바로 이러한 세계로부터의 벗어남일 것이다. 그러나 그게 '현실'인데 어찌됐나고 허무부적으로 말하고, 심리적 저항이라는 자기 위안과 함께 그 블랙홀 속으로 빠져 들어 가 버린다면, 정말로 삶의 발본적(radical) 변화로서의 혁명은 '이별'이, 아니 망상이 되어버릴 것이다.

1960년 4.19 직후 빠르게 4.19의 실패를 인식한 김수영은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발만 바꾸어 버렸다"(『그 방을 생각하며』)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뒤이어 이렇게 말할 줄도 알았다. "나는 인제 녹슨 펜과 뼈의 광기 - /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 이 가벼움 속사투리 역사일지도 모르는 /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고 말한다. 이런 자제가 우리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제는 아닐까.

"취업준비는 저학년 때부터 시작합니다"

2008학년도 상반기 취업특강(행사) 일정

서울캠퍼스 경력개발센터에서는 2008 상반기 취업특강(행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취업준비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장소	특강 제목	강사
3. 17(월) 15:00 ~ 17:00	애경홀	인·적성 검사	한국인재평가 개발원
3. 19(수) 15:00 ~ 17:00	애경홀	상반기 채용분석 및 입사전략	(주)인쿠르트 신상훈 부장
3. 21(금) 17:00 ~ 19:00	대학원 226호	인·적성 검사 결과분석 및 대처요령	한국인재평가 개발원 김기봉 부원장
3. 24(월) 13:00 ~ 19:00	애경홀	모든 SSAT실시 및 특강	(주)에듀스 천중수 팀장
3. 25(화) 14:00 ~ 18:00	대강당	대학생 영어연결 워크숍 행사	(주)SCOUT
3. 27(목) 17:00 ~ 19:00	대학원 226호	대기업 입사전략	(주)상성전자 김현도 부장
3. 31(월) 17:00 ~ 19:00	교수회관 2층 강연실	경쟁력있는 최단기 여학생 취업전략	LCN KOREA 임영숙 대표
4. 3(목) 17:00 ~ 19:00	대학원 226호	면접 A+를 위한 이미지 메이킹	빌드이미지컨설팅 지수현 실장
4. 8(화) 15:00 ~ 17:00	애경홀	면접 질문법 대처요령	이우근 HR연구소 이우근 소장
4. 15(화) 15:00 ~ 17:00	애경홀	면접 유형별 대응전략	한국취업전략연구소 유진봉 소장
4. 30(수) 15:00 ~ 17:00	애경홀	외국계 기업 입사전략	(주)아데코코리아 손정민 이사
5. 2(금) 17:00 ~ 19:00	대학원 226호	회사서 내뱉대로 취업준비하지마라	(혼자서 내뱉대로.....)지자 김세준
5. 8(목) 17:00 ~ 19:00	대학원 226호	영어 인터뷰 SKILL-UP (OPIC)	(주)원글리쉬 닷컴 김서훈, steve ward
5. 15(목) 17:00 ~ 19:00	대학원 226호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 연구	(주)이그넷 김중태 연구소장
5. 22(목) 17:00 ~ 19:00	대학원 226호	아나운서 및 방송사 시험준비 안내특강	봄은 아나운서 아카데미

* 상기 일정, 장소 및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울캠퍼스 경력개발센터

로그아웃

게임의 법칙



신춘현 | 대학부 차장

기울이며 하는 빠지지 않는 의례가 있다. 바로 '랜덤게임'. 여러 게임들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마시면서 배운다는 것. 게임에 걸려 한잔, 동기가 걸려 같이 한잔, 휴가사 요청에 한잔. 그렇게 받아 마시는 술들이 어느덧 자신의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든다. 술자리가 끝나 후 다음날 남는 것이 있다면 쓴 쓴 소주가 남기간 숙취뿐일 것이다. 술자리 때 선배, 동기들간 나는 대화중 남는 대화가 있었다면 아마 '랜덤게임'이라는 말만이 또렷이 기억에 남을 것이다. 술자리 후 남는 것 없는 안타까운, 대학인맥이 그저 깊이 없는 만남이라 안타깝다.

대학은 자유로운 공기가 공존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제 갖 대학의 발을 디딘 새내기들이 대학은 그런 공간임을 알았으면 한다. 우리 모두 새나기를 위해 마시면서 배우는 '랜덤게임'에 한가지 법칙을 추가하면 어떨까. 마시면서 서로에 대해 대화하기.

3월, 일년의 시작은 1월이지만 학생들에게 한 해의 시작은 3월일 것이다. 3월이면 캠퍼스는 새내기들로 북적이고 학생들은 개강이라는 시작의 문턱에 다시 선다. 봄이라 하기에는 아직 쌀쌀한 봄바람이지만 차가운 봄바람 맞아 신선하게 느껴지는 3월의 바람이다. 시작의 달 3월에 주인공은 역시 새내기다. 새내기들에게 대학은 3년간의 지옥같은 입시경쟁을 뚫고 들어온 곳이다. 새로운 학교, 동기, 선배 적응하기 바쁜 3월이다. 그 중 새로운 사람들과의 적응은 결코 쉽지 않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적응하는 방법은 아마 수업 후 선배, 동기들과 기울이는 술잔을 기울이는 것일 것이다. 술잔을

뷰은광장 **홍재용** | '성과 문화' 담당 강사

무지의 편견이 아닌 합리적인 판단

지난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었다.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우리나라 여성들도 잘 모를 것이다. 여권을 부르짖으며 행진을 시작하고 열띤 토론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는 몇몇 유럽의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딱 세상인 듯하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도 그들과 비슷한 행사들을 주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위성을 부르짖는 것 자체가 페미니즘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 대학생들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성의 날을 맞아 이미 식상해져 버린 페미니즘의 개념을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듯싶다.

페미니즘을 그저 남성우월주의의 반대 항으로만 인식하고 있던 것은가? 마치 '페미니즘 = 여성우월주의'란 공식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세뇌하고 있던 것은가? 남성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정서는 여전히 페미니즘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가 우리나라도 그들과 비슷한 행사들을 주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위성을 부르짖는 것 자체가 페미니즘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 대학생들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성의 날을 맞아 이미 식상해져 버린 페미니즘의 개념을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듯싶다.

데도 불구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무식이 용감하다고 해야 할까? 정확한 배경지식의 부재 속에 의미 있는 토론을 기대할 수 없다. 적어도 대학생이라면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것에 입각한 판단을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는 대학생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학자나 정치가들조차도 페미니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커다란 이목을 끌려는 노력을 보여온 한다. 올바른 비판은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뒤에 자신의 의견이 더해져야 한다.

최근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자아의 해체'와 '주변적인 것의 부상'이다. 주변적인 것은 타자(他者)로 명명할 수 있는 데, 타자는 쏠롱 소외되어 왔던 여성과 성적소수자에서 국한되지 않고 억눌리고 제외되어 왔던 소수자들을 모두 지칭한다. 나아가 페미니즘의 문화형식은 예전까지 하위문화나 변두리 문화로 홀대해 왔던 문화 형식이 부상하여 중심부로 이동하는 것을 허락한다. 우리는 현재 포스트모더니티라고 하는 거대 담론 속에 살고 있다. 우리 삶 전반에 포괄적으로 파고든 이 변화의 물결은 페미니즘에 있어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적어도 대학생이라면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된 페미니즘의 모습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후,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희산의 소리

홍산(홍FJSan)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한국의 조팔로 외대인이라는 뜻이다.

한국을 느끼다

중국에는 '인연이 있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만나기 마련이고, 인연이 없으면 바로 앞에 있어도 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한국과의 인연 덕분에 나는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국어를 공부했다. 그리고 작년 8월 교환 학생으로 한국외대에 왔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 호기심과 더불어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내가 7년 동안 동경하던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매일 김치를 먹고, 소주를 마시고, 열정적으로 바쁘게 살고 있을까?' 나는 이곳 외대 연수원에서 매일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적지 않은 외국인들을 만났다. 외대는 마치 하나의 지구촌과 같다. 모국어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같은 한국어어를

통해 대화한다. 그들이 각기 다른 국가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한국에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두 나와 같이 한국에 대한 애뜻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외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 무더운 7월이 되면 나는 한국을 떠나게 된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라는 말을 믿고 싶지 않지만 나와 한국의 인연은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유학 생활이 내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과 이후에 1년이라는 이 시간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제가 있도록 도와준 외대 관계자 분들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한다.

중국의 동북공정, 그 후

베이징 올림픽 경기가 오는 8월에 열린다. 이미 대부분의 종목이 예선전을 거쳐 올림픽 출전권을 따 놓았고 야구도 4연승을 하면서 본선진출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 점점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기대감도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림픽 경기에 집중된 시각을 다른 곳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다. 나는 작년에 '달바라기'라는 역사화에서 동북공정을 주제로 발표한 적이 있다. 몇 년 전 큰 이슈가 떠올랐지만 잘 알지 못했고 시계 간과할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에 발표를 했다. 나는 발표를 준비하면서 중국이 시행하던 동북공정은 그들의 계획 중 단지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가 단순히 동북공정에 분노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

는 동안 그들은 이미 여러 선행공정을 마치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중국역사를 기존의 4대명분보다 앞선 새로운 명분으로 부각시키려는 '요하문명론'이다. 이것이 성립되면 단군, 주몽 등이 중국 황제의 후손이 되며 한국의 역사, 문화 전체가 중국의 방계 역사, 문화로 전락하게 된다. 중국은 이번 올림픽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여길 것이다. 지금 적어도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역사에 관한 중국의 행동들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닐까 싶다. 단순히 분노하기 보단 냉철한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만평

서지영

등굣길도 많이 내는 후배라면 새내기야 -

유니버시티는 영문시대 영문판트네

배려의 프러피어들과 권력들의 해에게 주고

허수스 렌드라는 익스펜시브리드

홀대 캐피탈은 프라임 2호인

있네, 그대처럼 하고 갈까져.

익모는 두리터 어버땀

갑자보 장세 마취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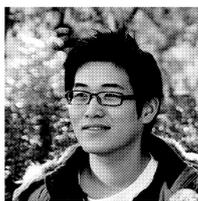
앵커를 쏘슈 드림이나 강타

• 지경: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제한 없음 • 배수: 200자 원고지 3매 내외 • 마감: 매주 목요일 정정 • 투고방법: 전자우편 hufspress@hanmail.net

나비의반란

김영득 | 사범 · 영어교육 02

2002년, 2008년



수업을 마치고 나는 후문 앞 벤치에 앉았다. 아침 첫 강의였던지라, 이미 막 수업이 끝났다고는 해도 벤치엔 드문드문, 두어 명만이 저마다 앉아 있었다. 함께 수업을 들었던 복학생 형이나 담배를 문다. 입학한 후 과방에서 자주 만나면서 평정히 친해진 형이다. 다섯 학번 위인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졸업을 위해 열심히 학점

을 채우는 중이었다. 그러나 그도 나도, 학점을 채울 뿐이었다. "내가 생각해도 참 배우는 게 없다. 학교에서" 2002년, 누구나가 그랬고 다만 그런 게 대학인 줄로만 알았다. 그때 내가 처음 만났던 대학은 다만 2시간, 3시간을 보내는 곳이었다. 다들 그렇게 믿고 또 학교를 다녔다. 공부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스스로 하곤 공부야 마려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여전히 02학번인, 나는 그러나 08학번 새내기가 지금 접하게 되는 대학생활이 더욱 혼란스럽다. 그들이 듣는 거의 모든 수업은 상대평가. 말지 않은 교양 학점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양강의와 역시 필수

로 들어야 하는 실용외국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분명히 2학점짜리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4시간이나 수업을 한다. 그렇게 정신없이 수업을 쫓아, 쫓아가다 반이만 학점으로 이제는 이중정공을 결정해야 한다. 1지망, 2지망, 3지망. 교육의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평등하게 학점에 따라 이중정공을 선택하거나 전공심화를 하게 되는 새내기들은 과연 입시지옥, 무한 경쟁의 트라이앵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것을 곳갓게 받아넘기는 그들의 끈기와 말없음이 나는 의아하다. 그들이 꿈꾸던 대학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그들은 또 나의 새내기 시절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절

대적인 위상에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의 교육은 제도적 욕구에서 한결 음모 벗어났고 있지 못하다. 경기가 좋을 때는 대학도 흥청망청, 학생들을 놓아주기보다 실업률이 올라가자 상대평가이 이중정공, 졸업인증까지 모든 방법이 동원된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많은 걸 학생들에게 마련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대학은 오로지 대학이어야 한다. 바야흐로 이명박시대에 꽃밭귀나 꼴 이어가지만, 진리의 전당 지식의 요람으로서 대학이 학생들과 마주할 날은 언제쯤 돌아올까. 바쁘게 과제를 하는 새나기를 바라보다 앉 아 글을 쓴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외대학보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교수님께, 우리 사회에 의견을 펼치고 싶은 외대인이라면 주저 없이 외대학보 문을 두드려 주세요.

이메일 : hufspress@hanmail.net
연락처 : (서울) 02-2173-2504
(용인) 031-330-4112
학생기자실 : (서울) 학생회관 117호
(용인) 학생회관 212호

명수당 | 서행정 | 인도어교 교수

인도철학 '다르산(Darshan)'에 대해

인도인들은 흔히 인도철학을 쓴 스코프리로 다르산(Darshan)이라 한다. 이 말은 견(見)이라는 의미로, 이것은 철학적으로 지견(知見), 즉 지고한 지식의 추구를이다. 이와 같이 인도철학은 인간에게 형이상학적으로 지적, 정신적인 결실을 가져다주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보편·포용적 시각에 대한 민주적·관용적 정신을 갖춘 역할이다. 인도철학은 생활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서 철학을 생활에서 실천하려는 자세가 인도사상의 전반에 흐르고 있다. 이른바 이론과 실제, 교리와 생활이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이 인도철학사상에 뚜렷이 드러나 있다.

인도에서 발생해 전통적 종교철학으로 정립된 것이 인도철학이다.

그것은 학문적 '지식을 위한 지식'의 철학이 아니라 인간을 자유롭게 해 주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철학이다. 그것은 진리가 실제적이라는 말로 측정하는 견해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가 실제에 이르게 하고, 진리만이 해탈에 도달하게 하는 인간의 안내자로서의 효력을 지닌 것이다. 그것은 세계와 인생에 관한 체계로서 종교와 밀접하고, 지적인 탐구도 인간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자유를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일한 실체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현상세계 형성이면에 존재하는 힘이 바로 사색할 대상이라는 해답을 찾은 것이다. 또한 내면적 인간자성에 대한 관점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의

문에서 자아분석적 자기반성이 외적 현에 대한 사색의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이들 의문들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하여 인도 성자들은 고행이나 사색을 한다. 그것은 인간성을 설명하고 우주에서 자기 위치를 인식하게 해 준다. 우주의 절대적 힘을 통해서 알 수 없는 힘, 그것이 바로 초월자요 유일자라는 것을 인도인들은 터득한 것이다. 그들은 이 초월자를 'neti neti'(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부정의 부정어로 표현해 강력한 절대자를 나타내곤 한다.

인간해방을 위하여 신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직접 자기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달려간다는 것을 강조한다. 업(業 Karma)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실존적 존재의 현상

으로 재생하게 될 결과도 인간 스스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도철학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그것은 재생의 냉혹한 순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그것을 영원하는 암시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

그것은 형이상학적 근리의 전개로 끝나지 않고 인생의 근원적 욕구를 종교적 실천방법을 통하여 해결해 가는 아주 일상적이면서 생활화한 철학이다. 다시 말하면 서구철학과 달리 인도철학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어렵고 힘든 현재의 존재를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찾아 꾸준히 연구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동네 BOOK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

내 안에 '우리 맛'의 의미를 깊게 새긴 우리글이 있다. '서편제'로 대표되는 작가 이청준의 남도연작. 문학 교과서에 실린 작가의 작품을 접한 뒤 그의 족적을 찾아 나선 적이 있다. 그리고 작가의 다른 작품이 영화로 담긴 최근까지 이청준이 담아내는 '우리 맛'을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러나 작가의 '우리 맛'은 매체에서 떠돌아다니는 진부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그려낸 맛은 흔히 정한의 정서로 불리며 민족을 대표하는 성질의 것으로까지 화해했지만 그의 붓질에는 마치 그란 식의 우상화는 이쪽에서 거절하겠다는 듯, 우리 민족이 공유하는 다양한 삶의 경험과 그래서 비롯하는 현실비판의 지가 어려웠다.

그런데 노작가의 붓질은 세월의

무게와 함께 한층 의뭉스러워진 듯하다. 그의 최근 작품들을 읽노라면 절절한 정한의 정서도, 날이 선 현실비판도 느껴지지 않는다. 문학읽기의 즐거움이라 할 수 있는 자극적인 맛을 찾아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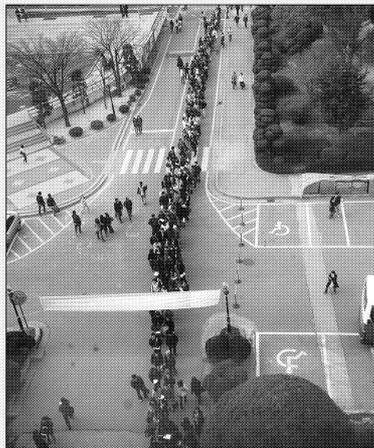
그의 필치는 담담하게 이어진다. 하지만 작가는 지루함으로 독자들을 실성나게 하지는 않는다. 글을 읽는 동안 느껴지는 담담한 구석은 어느 틈엔가 나지막한 울림으로 진동하고, 울림은 곧 묵직한 울동으로 독자를 사로잡는다. 작가는 더 이상 우리 삶을 두고 파문(破紋)을 일으킬 법한 물음을 던지지 않는다. 다만 담담하게 삶을 풀어냄으로써 독자 개인의 가슴속에 삶과 현실에 대한 물음을 나지막이 던지고 있을 뿐이다.

변종배 | 영어·영문 05



일시정지

내게 공간을 주시오



서울배움터 학생들이 도서관 사물함을 배정받기 위해 긴 줄을 서 있는 모습이다.

정은실 기자

학생기고 | 내용정 | 인문·인문학부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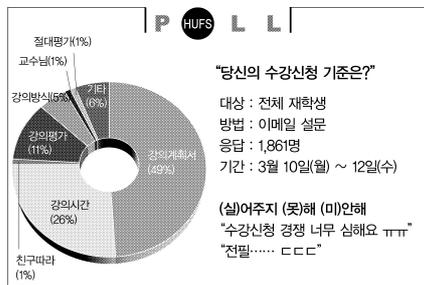
'글로벌'을 생각한다

요사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를 꼽으라면 나는 첫째로 '글로벌'을 꼽을 것이다. 세계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학교에 들어왔으니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과연 '글로벌'이 무엇일까? 내가 모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몸을 갖다 놓고 있으면 글로벌한 세계인이 되는 것일까? 단순히 '나와 다른'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글로벌인지, 나는 항상 고민하고 있었다.

내가 다른 나라에서 나를 펼쳐야 한다면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한다. 글로벌 시민을 꿈꾸는 사람이란 내가 그려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언제든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나의 경우 그 이유를 '정체성의 확립'에서 찾았다. 세계

화의 목적은 나를 확고하고 국가를 확고하고 민족과 인류를 확고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욕지는 세계화와 민족주의를 별개로 볼 수도 있으나 인간이 제대로 된 세계화의 절차를 밟는다면 민족 정체성 확립에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글로벌은 자아와 민족,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진보하고 발전하는 과정이다. 글로벌의 형태소를 외치는 것이 아닌 글로벌의 함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대학생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학교가 그 도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하는 진정한 전담의 대학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외대신문 QUIZ입니다. 아래의 문제를 풀고 문장답을 보내주세요.

퀴즈

- 다음 중 우리학교에 개설된 연계전공이 아닌 것은?
 ① 통아시아연계전공 ② BRICs 연계전공
- 영국 보수주의의 선구자로 알려진 인물은?
 ① 에드먼드 버크 ② 애덤 스미스
- '여학연수 때려치우고 세계를 품다'의 저자 김성용씨의 전공은?
 ① 신문화론학 ② 정치외교학

주침을 통해 문항상용권을 드립니다. 이번호에서 기왕 질문한 기사나 면을 함께 보내주시면 답장 확률이 높습니다.
 *보내실 번호: 010-7275-6143 *당첨되는 분은 외대신문사 02-2173-2504로 연락주세요.
 지난해로 정답은 1-② 702% / 2-② 17% / 3-① 코소보
 추정결과 휴대전화 뒷번호 자리 0120, 4019번이 추정을 통해 당첨됐습니다.

사설

학교운영에 학생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 있어야

우리학교 운영비의 80%는 학생의 등록금에서 충당된다. 그동안 학교 재단의 정상화와 발전기금 확보를 위해 학교당국이 애써 온 것은 사실이지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학교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등록금을 올리는 미봉책에 그치지보다는 학교 재정수입원을 다각도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비싼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학교 당국의 일처리 방식을 지켜보면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지 의심스러워질 때가 많다. 모든 학교정책 입안과 시행에 학생의 여론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얘기다. 그런데 신학기 들어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사례들이 몇몇 눈에 띈다.

최근 신속우여 오픈한 기숙사 '글로벌 빌'의 경우도 그렇다. 글로벌 빌은 개별 온난방 시스템 등 최신 시설을 갖춰 학생복지차원에서 단 거업 업그레이드된 프로젝트로서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본보의 취재 결과, 입주자가 거의 완료된 이 시점에 기초 편의시설도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숙사 준비기간 동안 자료수집만 제대로 했어도 학생 40인 당 세탁기 한 대라는 황당할 결과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기숙사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행정 처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숙사 측은 입실시 거쳐야 하는 출입기를 지문인식 방식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것은 기숙사 입주 학생들의 여론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결정된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에게 지극히 민감한 신체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계획은 자칫 인권침해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입주생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이미 지문인식 기기의 도입이 삽초기부터 계획된 정황으로 보아 행정 당국은 애초에 학생 여론을 알아보는 노력이 없었다고 추정된다.

물론 학교행정에서 매년 학생 여론을 제대로 수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난한 일이다. 때로는 학생 여론을 일일이 수렴하다가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잃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추진력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 행정 제 1의 목표는 학생의 편의 증진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의 속전속결주의를 빌미로 의견 수렴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학교구성원의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이는 비단 기숙사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학교 행정에 해당되는 원칙이다. 학교 당국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관심있게 들어주는 열린 귀이다. 물론 학생 자신에게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의견수렴기구를 활성화하고 학내 제반 사항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캠퍼스 건물의 신속과 확장만으로는 대학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진정한 내적 변모와 성장은 학교 행정당국과 학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구독신청을 받습니다

외대학보를
동문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구독신청을 하시면
어디서든 외대학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신청서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함께 보내주세요

구독신청
02)2173-2503
hufspres@hanmail.net



어학연수 때려치우고 세계를 품다

저자 김성용 인터뷰

“널 수 있어! 널 수 있어! 널 수 있어~!” 한 청년이 사막길을 험퍽거리며 달려오더니 카메라에 광 부딪힌다.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에벨탑, 마추픽추 등 세계 유령관광지를 훑기 다니며 춤을 춘다. 그의 흰 티셔츠에 적혀있는 뜻 모를 한 문장, ‘널 수 있어’ 이 UCC의 주인공이 바로 김성용군이다.

‘어학연수 때려치우고 세계를 품다(이하 세계를 품다)’ 저자 김성용군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에 재학중이다. 언론이 김 군을 수식할 때 ‘평범한 대학생’을 가장 많이 사용할만큼 그는 ‘군대 다녀와서 열심히 학교 다니는’ 28살 여느 대학생과 비슷하다. 그런 그에게 ‘널’ 평범한 이력이 있다면 1년간 배낭여행을 다녀왔고, 여행 중에 촬영한 동영상은 인터넷에 퍼뜨리고, 여행기를 썼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는 대학사회에 열정적으로 관한다. ‘대학생들이 취업이 아닌 인생 전체에 포커스를 맞으면 좋겠다. 여행을 하며 넓은 세상을 보고 많은 경험을 하길 바란다’ 대학 사회를 향한 이 외침이 그를 주목하게 만든다. 만약 당시에 취업으로 접었던 대학문화를 반기를 들고 싶다면, 혹은 반기를 들어도 될까 망설임이 있다면 김 군의 말에 응기를 내 보는 건 어떨까? 그를 가장 잘 나타낼법한 세 가지 키워드를 따라 어학연수를 때려치운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keyword 1. 여행

더욱더 여행을 하라 말았다. 좀 세우기식 분위기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비껴 서서 마음껏 자신의 지성과 인식의 스펙트럼을 넓히려는 말이었다. 이전 문지방이 아니라 얼얼히 나 자신을 위한, 더 나아가 미래의 한국 사회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렇게 말해도 지치지 않게 들고 늘어지는 걱정들이 있다.

“그래도 여행하면서 취업이 걱정되진 않던가요?”
아예 난 이렇게 답한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취업 걱정이 떨어진다”
_ 『세계를 품다』 216쪽

배낭여행을 결심할 당시 심정이 어땠는지?
영상상 열성운영진으로 활동하는 등 여느 대학생 처럼 활발한 대학생활을 보내던 중 허무함을 느꼈다. 경력이 얇아지고,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푼돈 받아가며 일하는 내가 기업체에 취직당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뚝뚝을 쫓았다’, ‘속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어학연수를 결심했다. 그러다 우연찮게 세계지도도 발견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넓은 세상에 빠져들었다. 고민 끝에 어학연수를 버리고 지구 한바퀴를 돌기로 작심했다.

여행지 선정은 어떻게 했나?
마음대로 고른 여행지가 미국, 남미, 유럽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잘한 선택이었다. 미국에서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남미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맹점이 보여

다. 그리고 유럽에서 그 절충점을 찾았다. 자본주의 사회이면서도 무료 의료, 무료 교육이 가능한 유럽의 사회제도는 내가 원하는 사회상에 어느 정도 부합했다.

여행에서 크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타지에서 워크캠프를 할 때였다. 자유시간이 생겼는데 테레 손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나라 학생들은 자연을 느끼고 신축을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는 등 한껏 여유를 누리고 있었다. 할 일이 없을 때 당황하는 나를 보며 한국사회가 얼마나 여유가 없고 일을 많이 하는 사회인지 깨달았다. 또 유럽 친구들 중에는 여행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쁜 한국과는 매우 다르다. 한국에서는 여행을 특별한 일, 일생에 한 번 받는 선물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가.

keyword 2. 널 수 있다 (It can be you)

“널 수 있어”
거기에 덩으로 영문까지 따라왔다.
“It can be you”
너무나 순식간에 스친 말이어서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생각해 보니 내 티셔츠에 박힌 문장이었다. 널 수 있어. 이곳에서 있는 나. 그것이 ‘나’ 일 수 있다는 말이다. 옮겨다니는 것만으로도 강한 메시지를 품은 이 문장!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_ 『세계를 품다』 107쪽

여행에 ‘널 수 있어’ 프로젝트를 접목시키게 된 계기가 뭐가?
여행과는 별개로 미국 SDaS(School for Designing a Society)라는 학교에서 3개월간 수업에 참여한 것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회를 디자인하는 학교’인 SDaS에서 강조하는 것은 ‘원래 그런 건 없다’, ‘사회의 시스템은 약속에 불과하다’, ‘울지 말고도 여긴다려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 학교 과정을 모두 수료한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사회를 디자인해 기회를 내야 한다. 내가 생각한 사회는 한국 대학생들이 획일화된 어학연수에서 벗어나 배낭여행을 하는 사회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당시 화제가 됐던 프리허그 동영상과 한 외국인이 개다리 춤을 추며 짝은 동영상을 벤치마킹해 각국의 명소 앞에서 나의 메시지가 담긴 티셔츠를 입고 퍼포먼스를 하는 동영상을 찍게 됐다.

동영상을 어떤 방법으로 찍었나?
디지털 카메라 동영상 기능으로 찍었는데 보통 외국인들이 동영상 찍는 것을 도와준다. 주로 여행한 지역이 남미이다 보니 의사소통이 안 돼 생을 했다. 가끔 이 프로젝트가 짐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명소에 가도 이번엔 누구한테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부탁할까 먼저 고민하게 됐다.

‘널 수 있다’ 프로젝트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선 내가 디자인한 사회를 알리는 수단이고, 동영상은 5분 분량이지만 1년동안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무척 고무적이다. 성취감은 다들 목표의 완동력이 되어 준다. 여행을 다녀온 후 동영상을 다시 보면 그 때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 든다.

keyword 3. 꿈

한 나라의 국민이 가지는 타국에 대한 이미지는 미디어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영상, 사진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 단 단장의 사진, 단 몇초의 영상에 국민들은 저긴 이리이러한 곳이구나 생각하게 된다. ...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 구성요소 막지되지 붙어 있는 각각의 괴물들이 스스로 교미하며 예측불허의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기본이다. 그 결과 내가 본 세계의 모습을 한국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언론 학도적 사명감에 불탄 괴물을 한 마리 잉태했다. 그 괴물 고인안고서 나는 다음 대륙인 유럽으로 향했다.
_ 『세계를 품다』 237쪽

책에 꿈이 라디오 피디라고 소개했는데 왜 라디오 PD가 되고 싶었나?
우선 내가 라디오를 좋아한다. 흔히 라디오는 낮은 매체라고 하는데, 경제적 약자, 소외계층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시현에 붙을 때 까지 도전하려했던 예전과 달리 피디에 대한 미련은 없다. 여행을 다녀온 후 직업을 통해 자아를 찾는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PD라는 옷을 입고 김PD로 불리고 싶어했던 것 같다. 그러나 PD가 아니더라도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가능성이 열려둔 채 어떤 직업을 가질 지 충분히 모색 중이다.

글 · 사진 정유진 기자 dwisfirst@hufs.ac.kr



전설이 된 예술가들의 전기를 읽다보면 그와 같은 시대들 산 사람들이 부러워진다. 이사도라 명친의 춤, 사라 베르나르의 연기, 에디트 피아프의 목소리를 최조로 맞닥뜨린 사람들이 느꼈을 활출함과 경이로움에 질투가 있다. 그리고 아마 한 세기 좀 뒤의 누군가도 같은 이유로 우리를 질투할 것이다. 지금, 김연아의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9월 5일생. 겨우 만 17세짜리 소녀를 두고 전설을 운운하는 건 너무 호들갑스럽지 않냐며 비웃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녀는 당장 전기문의 도입부에 쓰여져도 좋을 에피소드들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다. 피겨 스케이팅과는 영영 인연이 없을 것 같은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김연아는 열 나이의 동갑내기 라이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의 지원없이 스스로의 재능과 인내심만 믿고 연습,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덤덤 2위를 하며 등장했다. 이듬해엔 주니어 세계선수권과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1위를 했고, 급격히 국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할 무렵, 2007 세계선수권대회에 허리 부상을 입은 채 출전해서는 ‘목산노의 령’로 쇼트 프로그램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후흥을 보이더니 그 것도 모자라 첫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1위를 하고 마침내 올해 그랑프리파이널에서도 우승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랑프리 2연패를 달성했다. 피겨계의 신데렐라, 혜성, 요정, 여왕 등 어떤 찬사를 늘어놓도 어울리는 경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수상경력, 나이와, 성격이 어땠던 간에 은반위에 있을 때의 그녀는 그 아무리 거창한 수식어도 너끈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기술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를 테면 그녀의 연기가 끝난 뒤 각각의 전문가들로부터 나오는 찬사는 이런 식이다. ‘시간이 무척이나 빨리 갔죠. 아니 벌써 끝났어?’라고 느꼈던 내 그런 정말 멋진 프로그램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06 그랑프리 미국해설) ‘난 그녀를 보는 걸 좋아해요. 그녀는 음악에 맞는 멋진 움직임 가지고 있고요.’(낸시 캐리건, 전 올림픽 픽 은메달리스트) ‘저처럼 불평증이 높음에도 할 말이 이것 밖에 없습디다. 브라보!!!’(07 세계선수권 러시아 해설) 이처럼 그녀는 보는 이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준다. 스포츠 선수로서도 화려한 기록을 쌓아가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아름다운 그 자체에 있어서 김연아는 유일무이한 존재인 것이다.

한 인터뷰에서 라이벌 야사다 마오에 대한 질문에 김연아는 이렇게 답했다. “마오를 이기려고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거에서 완벽하게 하면 그걸로 평이죠. 꼭 1등이... 1등이 다인가?” 그녀에게는 1등보다 완벽한 연기가 중요한, 경쟁심을 넘어선 예술가로서의 자존심과 욕망이 있다. 아마 그 것이 그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또 지금보다도 더 멀리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녀와 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서 기쁘다. 브라보!!!

백희원 | 서양 · 불어 06

coming soon

www.hufsPress.com